

서른다섯,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집



서른다섯,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집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인 괴테가 남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집이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을 넘어서서 영혼을 채우고 재충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염원이 되기도 하며, 그 염원을 이루는 여정에는 우여곡절과 사연이 녹아들기 마련입니다.

정책모기지 체험수기집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를 통하여 내집마련을 이룬 감동적인 여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내집마련의 염원을 가진 분들께 희망을 심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사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및 적격대출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더 저렴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총 23.8만 가구에 20.1조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생활이 힘든 서민들에게 더 풍부한 주거복지 혜택을 드리는 주택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공사의 설립취지를 다시 되새기며 국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생활이 힘든 서민들에게

더 풍부한

주거복지 혜택을 드리는

주택금융정책을

★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 정 한 올림



목차

발간사	2
목차	4

[최우수상]

서른다섯,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_ 정○○	7
--------------------------------	---

[우수상]

힘들게 살아오면서 친구 “주택금융공사”를 만나다 _ 이○○	13
불가능한 건 꿈꾸면 안 되나요? _ 박○○	24

[장려상]

안녕 보증자리론, 반가워 우리 집! _ 최○○	31
정책모기지 ‘디딤돌’ 삼아 ‘보증자리론(으로)’ _ 박○○	44
행복의 의미 _ 조○○	51
아낌 없애 주는 나무 _ 김○○	60
보증자리를 찾아서 - 아낌없애 보증자리론과 함께 _ 진○○	69
날빛 _ 명○○	76

[가작]

억척 내 집 마련기 _ 이○○	83
영원회귀; 永遠回歸 _ 김○○	91
병원 침대 아래 전기장판으로 만든 집의 이사 이야기 _ 박○○	97
아낌없애 보증자리론으로 우리의 보증자리도 ok _ 송○○	106
대출의 노예에게도 ‘갑’은 있다! (대출계의 1등급 U-보증자리론) _ 송○○	113
꿈을 지켜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_ 최○○	119
희망을 선물하려 해 _ 전○○	124
어두운 터널에서 한줄기 빛을 보다 _ 김○○	131



서른다섯,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집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전화 051. 663. 8284(정책모기지부)
홈페이지 www.hf.go.kr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051. 630. 1215
www.ggad.co.kr

수기집 수록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배포, 게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최우수

점○○

서른다섯,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마치 제비집 같았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누구 하나 어깨를 펴지 못할 만큼 비좁았지만, 일곱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80년대 말 지방 소도시에서 지어진 대단지 주공아파트. 우리 일곱 식구는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평수인 13평에 살았다. 엘리베이터는 사치였다. 5층까지 하루에 기본 두세 번을 오르락 내리락했다. 하지만 28년을 살면서 5층으로 가는 69개의 계단이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유치원에 다닐 땐 막둥이인 내가 힘들어하면 엄

마가 기꺼이 업고 올랐으며 아빠는 첫 번째 계단부터 마지막 계단을 밟을 때까지 아파트 통로를 놀이터 삼아 나와 놀아줬다.

다섯 명의 자녀가 모두 같은 성별로 태어난 게 그나마 다행인지 방 두 칸짜리 집에서 다섯 자매가 큰 방을 같이 쓰고 작은방은 부모님이 쓰셨다. 한 사람이 간신히 서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좁은 주방은 앞 베란다를 터서 만든 탓에 외풍이 심했고 엄마는 겨울이면 살을 도려낼 듯한 추위를 견디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7인분의 삼시세끼를 차리고 또 치웠다.

집은 지어진 그대로에서 성장을 멈췄는데 딸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듯 집에서도 졸업을 해 각자의 세상으로 하나 둘 떠났다. 그 집에는 유일하게 키가 작아진 두 사람만이 살고 있었고,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면 불을 덜 켜 마냥 집도 생기를 잃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팠다. 한 번도 아픈 적 없던 엄마가, 무쇠보다 강했던 엄마가, 그렇게 작은 집에서 너무나 크게 아팠다.

올해로 일흔넷의 아빠는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귀 수술도 하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도 있다. 매달 한 시간 반 거리의 대학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고 보청기와 틀니도 하신다. 그런데 아빠의 그 모든 병력과 수술을 무색하게 만든 엄마의 결정적 한 방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선천성 척추분리증과 척추 전방 전위증.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두 단어 때문에 엄마는 배와 등을 양쪽에서 뚫고 척추뼈 세 개

에 본 시멘트를 부어 철심을 고정하는 5시간의 대수술을 준비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수술이 미뤄지면서 엄마는 거의 반 년 동안 집 앞 마트에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한 번은 방심한 틈에 고꾸라져서 다리가 부러질 뻔하기도 했다. 28년을 살아온 5층 아파트에 갇혀버린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집이 싫고 원망스러운 적도 없었다.

‘허리 수술을 하고 나면 5층까지 어떻게 오르내리나’ 걱정하는 내 속을 읽고는 이 집이 좋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는데, 나는 알고 있었다. 평생 주변에 폐 끼치기 싫어 발소리, 숨소리조차 숨기는 노인들인데 수술하는 마당에 빗까지 지면서 이사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나는 마음과 다르게 계속 화를 내고 있었다. 퇴원하고 5층을 어떻게 올라올 거냐고, 기껏 천오백만 원을 들여서 수술한 허리 다 망가지지 않겠냐고, 그러니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지만 대출받으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신용대출이니, 카드 돌려막기니,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딸들 덕분에 간접 경험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는 내가 서른다섯의 늦은 나이에 일을 저질렀다.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마자 고향에서 언니가 물색한 관찮은 아파트로 덜렁 계약을 해버렸다.

내가 요구한 기준은 딱 두 가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방이 따뜻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2020년 봄, 엄마의 예순 아홉 번째 생신에 나는 리모델링까지 마친 새 아파트를 선물해드렸다. 빛은 없지만 모든 빛을 갇은 듯 마음이 후련했고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

넓은 아파트처럼 희미했던 부모님의 얼굴도 밝아졌다. 그동안 집이 좁아서 사지 않던 물건들을 이것저것 고르고 꾸미면서 신혼부부처럼 즐거워했고, 마트에서 장을 본 수레를 그대로 집 현관까지 끌고 올 수 있어 편하다며 나에게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난생처음 타본 아이들처럼. 그리고 더 이상 택배 배달원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엄마와 아빠는 반백년의 결혼생활로 구부러진 몸을 펴듯 각자의 방을 하나씩을 넓게 차지했다. 엄마는 이제 따뜻한 주방에서 더욱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해가 뜨면 두 사람은 넓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며 다정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명의 딸과 세 명의 사위, 여섯 명의 손주가 오면 집이 좁아 골치 아픈 대신, 어디든 함께 널브러져 부대껴 놀 수 있으니 자주 오라고 이야기한다. 집이 가족과 행복에 미치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전에는 몰랐었다.

물론 나는 부모님께 집을 사줄 만큼 부자는 아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혼자 전세로 살고 있는 평범한 7년차 직장인이다. 서른다섯에 거주하는 집이 있고 내 명의의 집이 한 채 더 있다면 사람들은 필시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거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빌려준다.

나도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는 내가 부모님께 집을 사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서울 집의 전세 이자도 가볍지 않은데 내 명의로 집을 사서 대출 이자에 원금까지 갚는 상황이 쉽게 계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지 반 년째,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내 집에 적금이 쌓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괜히 내 자신이 기특해진다.

일반 시중은행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두 가지 모두 이용하면서 혼자 비교하게 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내가 매월 내는 두 가지 대출의 총 금액은 비슷하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원리금 균등상환이라서 받은 집값으로 쌓이고 받은 이자로 나가서 저축과 같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 반면에 전세 보증금 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란 생각이 들어 허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경중의 차이가 크다.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고정금리였는데 대출을 신청하던 시기 시중

금리가 3%를 훨씬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연 2% 초반의 고정금리라는 점이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아무래도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보금자리론이 지닌 최고의 강점은 고정금리가 아닐까 싶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금 시중 금리에 맞춰서 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보금자리론보다는 0.4% 정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금리가 내리기 전에는 1.3%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었다. 아무래도 금리 변동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변동금리가 지닌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보금자리론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15년. 하지만 나의 새로운 목표는 5년 안에 원금을 모두 중도 상환해서 이 집을 100% 완벽한 우리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엄마가 한 달 간의 요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행복한 우리집, 막둥이 딸이 왔다고 엄마 아빠가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집.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이 영원히 가득하길 바라본다.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우수

이 ○ ○

힘들게 살아오면서
친구 “주택금융공사”를 만나다

평생을 2세들과의 교육만을 얘기하며 살아온 지 언 70년..... 내가 일관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다.

중국 역사학자의 대부인 사마천은 그가 지은 역사책 “사기”에 보면 “1년을 편안히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편안히 살려면 나무를 심고, 평생을 편안히 살려면 덕행을 쌓아라”고 하였다.

나는 매년 신학기가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본 강의에 앞서 이 내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천 할 것을 가르쳐 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70

여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사자인 나는 곡식, 나무, 덕 그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하고 불쌍한 늙은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아온 날 보다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나 스스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바보처럼 부끄럽게 살아온 잃어버린 70년 삶을 잠시나마 뒤돌아보면서 친구 “주택금융공사”를 만나는 과정을 사실대로 진솔하게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시갯바늘을 1995년 3월, 내 나이 45세가 되는 시점으로 뒤돌려 본다. 슬하에 3남매를 둔 가정으로 대구에서 살면서 대구 인근 농촌지역에 위치한 남사고등학교(사립)에서 아이들에게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평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농촌지역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 자연히 대도시로 다수의 학생 수가 유출 되었다. 결국 학교는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급기야 공립학교로 통,폐합에 이르게 되었고 나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실업계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전근을 가게 되었다. 동시에 사립학교 교원연금공단으로부터 9천9백여만원의 재직기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나는 아내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이용 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1안”은 받은 일시금을 재불입하여 연금으로 계속 이어 가는 것이고 “2안”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 우선 내 집을 장만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최종적 결론은 “2안”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 유인즉 “1안”은 당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가 만65세였기 때문

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근무를 마치게 된다면 20년 연금대상자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부부는 6개월 후 마당이 있는 아담한 2층 단독주택을 구입하였고 아내는 주택을 담보하여 대출(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부담이 매우 컸음)을 받아 작은 식당을 개업하였다. 나는 원거리에 학교가 있는 관계로 통근이 힘들어 그 곳에 전셋집을 얻어 생활하면서 주말 부부가 되었다. 아이들 모두 성장하여 대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고 나 또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여 석사 학위도 취득하였다. 그러나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지출 항목이 점차 많아졌고 급기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아내의 가게마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얹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 교원 인사 규정이 바뀌어 교사의 정년 나이가 만65세에서 62세로 당겨지게 되면서 이제는 만기퇴직을 하더라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없는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12년 2월, 먼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정년퇴직이 내 차례가 된 것이다.

42년간의 정든 교직생활을 평교사로 마감 하던 날, 많은 지인들의 격려와 축하(황조근정 훈장 수상)를 받았지만 기쁨 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 되는 순간이 되었다. 앞이 안 보이는 퍽퍽한 깊은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고, 결국 헤쳐 나올 수 없는 노후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1억3천여만원을 수령하였는데 그때 당시 나의 대출 등 부채는 농협대출금 9천5백만원(담보대출 6천만원, 신용대출 3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신한은행, 현대캐피탈, 공무원연금공단, 교직원공제회 잔여학자금 등 대충 2억원 가량 되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없다. 셈은 아주 간단했다. 잔고가 없는 마이너스인 상태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전무한 처량한 빚쟁이로 전락한 것이다. 일단 농협대출금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부채를 모두 정리 했다.

그때부터 반성과 고민이 시작되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 그 동안 나는 한 순간의 쾌락과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공기가 흔하다고 공기의 고마움을 몰랐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했으니 나의 처지와 분수를 망각한 채 백로가 되어 까마귀 노는 곳에서 속절없이 긴 세월을 허비하며 살았노라고..... 아~~ 거듭 거듭 후회를 해 보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얻어진 물이 아닌가. 70년 긴 세월을 바보처럼 멍청하게 살아 온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없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가진 자들은 쉽게 말하지만 부족함을 실제 경험해 본 나로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제부터는 아름답고 예쁜 꽃길이 아닌 험한 사막길과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차제에 당장 매월 불입해야 할 농협대출금(담보6천만원 6%, 신용3천5백만원 9%)의 원금과 이자 약 70여만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였다. 지금 나에겐 엄청나게 큰돈이 아닐 수 없었다. 밀림의 왕 사자는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풀잎은 먹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내와 나는 그 풀잎을 먹기 위해 또 다른 생활 전선에 뛰어 들어가야만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돈을 벌 수 있는 일터로 나갔다. 아내는 식당 도우미, 요양병원 중환자 간병인 등 힘든 일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했고, 나 역시 일용직 건설현장 노동자부터 시작하여 청소부, 주유원, 벽돌공장, 포장공장잡부,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그리고 현재 일 하고 있는 모텔 주차요원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진정 숨을 쉬며 살아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었다. 그 많았던 동호회 모임도 줄이게 되었고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 버렸다.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산소 같은 영양가가 듬뿍 담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애물단지가 되어 초라하게 망가진 내 모습, 또한 아내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축 처져 지쳐 있는 아내를 보니 안쓰럽고 곤혹스러워 보였다.

줄(남편)만 잘 섰다면 이 고생을 안 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 자신이 너무 미웠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 한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슬프고 회의감이 들면서 끔직한 이 현실에 마냥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 65세가 되던 해,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었기에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러 갔다. 담당자 왈, 조회를 해 보더니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교사로 정년퇴직 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월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자초지종 말하고 사정해 보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나는 나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글로 적어 시청, 도청, 연금관리공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권익위원회, 심지어 여의도 국회(관련 법 개정)에 노령연금 지급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편지를 보내 문의를 해 보았지만 하나 같이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모름지기 이 나이가 될 때면 남들은 모두 혜택을 보는 노령연금조차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처량한 서민(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신세가 된 것이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실망도 컸다.

2년 전 10월, 내 나이 칠순이 되는 날, 아들과 두 딸들은 자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반듯하게 성장하여 모두 외지에서 잘 살고 있다. 전 가족이 모여 포항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으며 내려 온다고 큰 딸에게 연락이 왔다. 자식된 도리를 다 하겠다는 것이다. 정성과 효심을 생각해서 승낙을 하고 대신 손자들 데리고 먼 길에서 오는 것이 부담 될 거 같아 내가 서울로 올라갔다. 오랜만에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그리고 칠순 생신을 축하 한다면 1천만원을 건네면서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하며 아내가 더 좋아했다. 시간을 만들어 너희들 바람대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지만 지금 내 형편이 여행 갈 처지지 못 되질 않는가, 곧장 서울에서 내려오자마자 농협이 신용대출금 일부를 갚았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자식들과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다짐하였다. 퇴직 후 단 한 번도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렵פות이 눈치를 챘는지 매달 고정으로 지출 되는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전화기요금 등 용돈도 가끔 받고 있어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평소 자식들의 도움은 절대 받지 않겠다던 나의 소신과 자존심은 정녕 어디로 사라져 버렸단 말인가? 하며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채찍질 해 보았다.

2019년 가을 어느 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실시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한때는 인터넷 검색 1순위로 올라갈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처음엔 이 제도를 잘 몰랐다.

이름 자체가 다소 어렵고 생소해서 이게 뭔가? 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더니 알고 보니 돈을 빌리는 일종의 상품이었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나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에게 대출(주택부분에 한해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을 통해 전환대출을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상환하게 하는 하나의 대출제도였다.

이것이야 말로 내겐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높은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는 농협 주택담보대출(6천만원)이 큰 부담을 주고있는 터라 이게 만약 전환되어 성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나의 경제적 사정을 보아 나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다. 내겐 안성맞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농협담보대출을 전환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는 말도 않고(분명 안 될 것으로 생각했음) 일단 신청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출 조건이 무척 까다로웠다. 합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잘 될수 있을까? 잘 되어야 될텐데... 잘 될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난생 처음 시도를 해보게 되었는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접속자들이 예상대로 엄청나게 많았다. ARS는 며칠 동안 통화가 불통 되었고 인터넷 접속하기는 더 더욱 힘들었다. 몹시 짜증도 났고 잠시 주춤하면서 포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6일째 되는 날 밤 2시 30분 쯤 한밤중에 간신히 접속 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얼마 후 대출심사과정을 통과하여 “합격”했다는 문자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고 곧장 지정된 신한은행으로 달려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환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꼭 안 될 것만 같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뜻대로 되는 일 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았던 굴곡된 삶을 살아온 나였기에 이번에 실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성공적으로 성사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 그 이상 이었다. 아마 교사 임용 시험에서 합격한 날도 이렇게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먼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놀라움을 넘어 감동하는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담보대출 이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매달 나가는 높은 대출금 이자를 꼬박 꼬박 갚는 것이 무척 힘들었는데 일단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보니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게 사실이었다.

아침에 내린 영롱한 이슬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데 만약 벌이 먹었다면 달콤한 꿀이 만들어 질 것이고 반대로 독사가 먹었다면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나에겐 달콤한 꿀 그 이상이 아닐 수 없었다. 농협담보대출은 변동금리이면서 대단히 금리가 높아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줄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담이 되었고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실제로 전환이 되면서 농협담보대출의 이자에 비해 약 20만원 정

도 차액이 발생 하였는데 이 20만원은 나에게서는 큰돈이었다. 나는 이 돈의 탄생이야말로 그 어려운 문턱을 넘어 전환대출 심사를 합격시켜 준 주택금융공사에게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금액을 매월 주택금융공사가 내게 주는 장학금, 혹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노령연금이라고 간주하려고 한다. 또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나였기에 “멋진 주택금융공사라는 친구”를 만난 덕분이 아닌가 싶다. 해서 그간의 모든 공을 나의 구세주가 된 주택금융공사에게 돌리려고 한다. 주택금융공사야말로 나에게진 진정한 경제적 반려자가 된 것이다.

마침내 그해 12월 12일 첫 회 대출금을 상환하던 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8만5천원을 계좌이체하고 은행 문을 나서면서 나는 앞으로 매월 12일은 대출금 상환하는 날 이면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장학금(노령연금) 받는 날”로 정하기로 하였다. 지구상 어느 나라,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기념비적인 날을 만든 것이다. 그 만큼 이번에 실시한 전환대출의 합격은 나에게진 절대적으로 “좋은 비”(때를 알고 내리는 비)가 되었고 이 또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대박이었고 나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 웃음 지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행복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만 같았다.

비록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많았던 바보처럼 힘들게 살아온 인고의 70년 긴 세월, 자식들에게 만큼은 짐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라고 다짐해 보면서 이미 남들처럼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결단코 빚(부채)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하는 치욕적인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 혼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지금 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이제 더 이상 후회도 좌절도 하지 않고 매사 긍정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또 다른 좋은 친구를 만날 것을 기약해 보면서, 한편으론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되새겨 본다.

끝으로 신청접수에서부터 심사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물어보고 하고 질문도 했는데 그때 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6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우수

박○○

불가능한 건

꿈꾸면 안 되나요?

2017년 7월말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을 받아 들고 나는 눈물을 쏟았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내 소유 아파트!

주민등록초본 3장을 채울 만큼 전세 월세를 전전하며 이사를 거듭했던 지난 시간들이여 안녕! 직장생활 21년차가 넘은 나의 경우, 마흔다섯에 생애 처음 내 집이라는 걸 가져본 거다.

주마등처럼 지난날이 스쳐간다. 진즉에 이런 기쁨을 맛봐도 봤을 터인데, 일단 큰 숨을 한번 내쉬고 묶어놔던 이야기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어본다.

우리집 아들은 둘 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귀안에 달팽이관 발육 부진으로 토탈 데프(Total Deaf)라는 특별한 훈장을 가지고 태어났다. 두 살 터울 아들 녀석들이 연달아서 똑 닮은 쪽박귀를 달고 나왔을 때 설마설마 했지만 둘은 그렇게 세상의 소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소리를 못 들으니 당연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집은 수어로 교육이 가능한 청각장애특수학교를 찾아 서울 쪽으로 기를 쓰고 이사를 해야만 했다.

청각장애로 병원에 진단, 수차례 검사, 인공와우 수술이 되는지 만나 본 의사만 해도 한 줄을 세우면 운동장 반은 될 것 같다. 아들이 하나도 아닌 둘 다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 이걸 참말로 가혹한 그분의 심보가 아니던가, 어느 날 애들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며 울다 지쳐 엉뚱한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며 왜 우리집 문이 안 열리는 건지 한참을 서 있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아들이 듣는다고 혼자 बारबार 소리를 질러 보기도 하다가, 결국 들을 수 없는, 말할 수도 없는 아들들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까지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수어를 같이 배워야 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힘들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은 내 이름으로 명의를 내 준 그 사업장을 잘 꾸려나가는가 싶었는데 2007년 겨울 돌연 잠적했다. 이걸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남겨진 빛이 얼마인지조차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 무렵 영화배우 최진실 자살 소식이 내 기억 속에 너무도 뚜렷이 남아있는 건, 그 때의 암담함으로 나 역시도 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당신도 어지간히 힘들었나보네...’ 울음을 삼키며, 두 아들 손을 잡고 지하철 들어오는 난간에 한참을 서있기도 했다. 여기서 뛰어내려면 이 아픔이 끝이 날까?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하기에 나는 적극적으로 공장에 나가서 빚쟁이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사업한 게 아니고 그 잘난 남편이 실제로 공장을 운영했다는 걸 알고 있던 거래처 사장들은 빌려준 돈, 못 받은 거래처 대금을 일부 포기해줬지만 잠적한 남편이 내 앞으로 남기고 간 빚은 8억이 넘었다.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어렵게 2010년에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5년 까지 채무를 다달이 갚아나갔다. 덕분에 나라는 사람은 은행연합회 특수정보 보유자로 관리를 받았고, 내 명의로는 어떠한 재산 행위도 할 수가 없었다.

생때 같은 아들 둘을 부여잡고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신줄 놓지 않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일이었다. 그 와중에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승진도 했고 아들들에게 엄마도 열심히 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보자! 비록 귀는 못 듣지만 뭐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커주었다. 물론 아빠의 빈자리가 남긴 상처는 쓰라리고 아팠지만, 청각장애라는 정체성에 대해 한동안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사춘기를 겪는다는 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크고 있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고마웠다.

아들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무대 위에서 떨지 않고 자유자재로 표현을 잘하는 재능을 유심히 살펴보던 나는 아들에게 마임과 마술을 가르쳐줬다. 자신의 청각장애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던 아들은 유명한 마술사로부터 마술을 배우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된 거다. 여러 행사에서 초청을 받아 ‘매직 준브라더스’라는 팀 이름으로 마술 공연을 한동안 꽤 많이 다녔다. 덕분에 2015년 7월경 SBS 스타킹에 출연하는 특별한 경험도 해봤다.

2016년 무렵 나와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떨지 않은 곳에 아파트 월세를 살았다. 그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 여자 사장님께 내 사정을 진즉에 털어냈고, 특수 신용정보가 풀리면 어떻게든 집을 하나 살 테니 나 좀 도와 달라 부탁을 드려 봤다.

그 부동산 사장님 말에 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생애최초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런 것도 있으니 얼른 신용정보가 풀리기만 기다려보자는 거였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장미가 한창 필 무렵 아파트 급매 물건이 나왔노라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마침 내 신용정보를 조회해보니 나의 삶을 특수하게 만들어준 특수관리가 해제 되어있는 게 아닌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 물론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꼭 끌어안고 말이다.

실제 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9천5백만원이었는데, 생애최초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포함 2억5천만원 빚을 지고 산 것이니 누가 들어도 이건 미친 짓이었다. 그야말로 깡으로 그 집을 산거나 다름없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더러 어찌 그리 무모하냐고 웃었다. 그들은 모르지, 애들 가르치려니 서울로 어떻게든 입성해야했고, 가진 것은 없으니 월세로 전전하던 내게 집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월세 내고 사느니 어떻게든 내 집은 마련 해야겠다 굳은 결심을 했던 나이기 에, 세상 사람이 다 비웃어도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고 또 기뻐다.

다행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 나의 경우 실수요자니까 대출에 대출을 끼고 이자와 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살았지만 그래도 이사 자주 안가고, 주인집 눈치 안보고, 아이

들과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3년을 버티고 살았다. 드디어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를 졸업하게 된 2020년 2월 경기도로 이사를 결심하고 그 집을 팔았다.

경기도로 이사를 할 때도 나는 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둘째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되면서 서울에서 샀던 집의 3분의 1정도만 대출을 받았으니 숨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코로나19 유행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이사를 강행하며 ‘아휴 정말 너는 어찌 시종일관 무모하냐’ 자책아닌 자책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주택 담보대출을 대폭 줄이고 이제라도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뿌듯함에 내 자신에게 칭찬을 아니할 수 없었다.

돌아보니 나 같은 사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러한 대출들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었다. 나와 같은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며 삶의 간절함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감사함을 이렇게 지면으로라도 전달을 좀 드리고 싶다. 나로 하여금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편안히 잠을 재우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시키고, 재능도 키워주고, 참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해주는 곳이 집이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연예인 이효리가 뉴스룸에 나와 앵커와 대화하는 모습 중에 앵커가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자 그녀가 이렇게 받아쳤다.

“불가능한 것은 꿈꾸면 안되나요?”

그녀의 재치 있는 대답을 들으며 아니 나아말로 불가능한 것을 꿈꾸었던 당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그 이쁜 이효리 보다 내가 더 이쁘다는 생각을 해본다.

꿈꾸는 자는 아름다우니까~~

심지어는 그 불가능한 꿈을 이루었으니까~~

다시 한 번 이 지면을 통해 내집 마련의 그 ‘불가능한 꿈’을 이루게 도와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싶기도 하고, 가슴 아린 이야기 들을 이제는 담담히 말할 수 있어서 삶은 역시 살아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19의 험겨운 시간들 속에 우리 모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내기를.....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장려

최○○

안녕 보금자리론
반가워 우리 집!

아이의 생일이 오기 이틀 전, 유월의 절반이 지나간 날의 다섯시 반에 반가운 번호에서 한동안 뜸했던 문자가 왔다.

‘고객님의 소중한 사연을 공사에 들려주세요!’

지난해 연말 이 번호에서 받는 문자에 가슴 졸이고 기쁨에 차올랐던 기억들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글자를 아직 읽을 줄 모르지만 그래도 휴대폰 문자를 읽고 싶어 하는 아이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나의 집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자 오랜만에 랩탑 앞에 앉았다.

지금은 휴직을 내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주부이지만 작년에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찾아온 축복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는 초보 남편이자 아빠였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그렇듯 우리의 사랑의 결실인 결혼 생활에 소중한 부모님께 걱정과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면목동의 소박한 투룸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했고, 둘만의 첫 보금자리에 너무나 만족하며 지냈다. 광장동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신 나의 부모님께 비하면 훨씬 나았기에 감사한 집이었다. 지극히 보통의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였던 우리 둘의 주머니 사정에 딱 맞는 곳이었고, 직장에도 가까워 더할 나위 없는 곳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니 집 안이 더 가득찬 기분이었다. 실제로도 아이와 함께 아이의 물건들도 집에 들어오니 기분 탓만은 아니기도 했다. 여기서 먼저 보통의 부모처럼 아내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지금이야 갓 태어난 아이가 지내기엔 투룸이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크면서 뒤집고, 기어다니고, 붙잡고 일어서 걸어다니다 결국엔 뛰어다니게 될 텐데 우리만 편하다고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순 없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사를 고민하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 집 결재권자가 이주계획을 발표했으니 이제 실무자인 내가 발로 뛰는 일만 남았다. 첫 전셋집을 구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학창시절 때부터 줄곧 고민했으나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명제가 있었다. 친구들과 높은 곳에서 시내 전망을 보면서 “이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이 없냐, 아니 내가 살 집이 있기는 한 것일까?” 이것은 나를 포함한 요즘 세대 젊은이들의 공통적인 화두이자 고민일 것이다. 결혼 전에 아파트 집 열쇠와 고급차 열쇠를 보여주며 “우리 결혼하자!” 라고 프로포즈하지 못한 정말 가진 것 없는 나와 함께한 아내에게 무한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고마움만 가지고 살순 없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내 입장과 수준에서 내집 마련 명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인스타그램에 현금 다발 쌓아놓고, 부를 과시하는 금수저가 아닌 바야 집 값의 전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었다. 그 당시 가진 재산이라고 해봤자 친척 할머니께 물려받은 감가상각이 예전에 끝난, 폐차해도 30만원 쥐야 되는 96년식 소나타Ⅲ가 전부였던 나는 당연히 도움이 필요했지만, 자식을 독립시키고, 노후를 준비하셔야 하는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가장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출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젊은 나이에 부는 거머쥔 영앤리치는 아니었으나 나는 좋은 시기를 타고난 올림픽 베이비였다.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 이라고 했던가, 모든 정책이 우리 가족에

게 다 맞을 순 없었다. 주택금융공사와의 첫 만남은 짧지만 강렬했다. 웹서핑을 하면서 전세대출 중에 가장 유명한 ‘버팀목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보다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이다. 당시에 나는 전셋집에 관한 대출만 보고 있어서 디딤돌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란 막연한 미래에 희망을 품으며 기억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그 ‘막연한 미래’는 생각보다 나에게 빨리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아내가 아이를 키울 안정된 환경을 위해서 내집 마련을 결심한 그 순간에 말이다.

5년차 직장인이자 1년차 새신랑, 0년차 애아빠인 내가 서울에서 내집 마련을 결심했다면 사람들은 으레 잘나가는 직장에 다니거나 부모님이 뽐뽐한 지원을 해줄 거라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케이스에 속한 나는 첫 전셋집을 구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달려야했다. “내 기준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먼저 살 집을 찾아보기로 하고 네이버 부동산을 누렸으나, 서울의 벽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행정구역 상 서울로 보이는 곳들도 내 수준엔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결혼한 이래로 열심히 신규아파트 분양 청약에도 도전하였으나 신혼부부 전형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경쟁의 향연이었다. 대학입시가 그랬고, 취업시장이 그랬듯이 주택시장도 준비된 자들의 것이었다. 제한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하여 나는 일반적인 매매에서 조금 다른 길을 살펴보기로 결정하고, 법원경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물론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경매에 익숙한 경험자인 장인 어른과 사랑하는 아내의 제안이었다. 아이가 없을 때는 경매 같은 일 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집을 살 생각은 단 1퍼센트도 없었으나, 양육해야 할 아이가 생긴 아내는 생각의 전환도 과감한 어머니이기도 했다.

전셋집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우리 부부는 매일 식사하듯이 경매 사이트를 검색했다. 이번에 집을 사게 된다면 한 두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십년을 내다보게 되니 금액뿐만 아니라 집의 크기도 중요했다. 또한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더라도 매매가 원활하도록 아파트를 찾기로 했다.

기다림의 고민의 연속 끝에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이 나타났다. 아직 낙찰 받은 건 아니지만 낙찰될 상황에 대비하여 계획은 자금조달을 할 계획을 세워두었다. 우리의 자금조달 계획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주연배우는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볼 때 스쳐지나간 기억을 더듬어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열심히 대출상품을 예습하였다. 대출 상품을 알아볼 때 항상 먼저 보는 것은 소득기준이었다. 월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라는 상식에 걸맞게 부부 합산 소득은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 보다 높았다. “아, 우리가 잘 버는 커플이었구나!”라고 감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른 상품을 찾아보았다.

보증자리론과 적격대출이 눈에 띄었다. 검색해보니 적격대출은 빨리 소진되어 거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의 희망은 보증자리론 하나다. 주택 금액도 기준에 들어가는데 또 소득 기준에서 불충족했다. 좌절하며 당황하는 순간에 신희이라는 단어가 보였고, 거기 약속의 숫자가 보였다. 합산 소득 8500만원까지 소득기준 완화라니 구원의 빛줄기가 보였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우리 부부는 그 기준에 간발의 차이로 턱걸이 하듯 들어가게 되었다. 승기를 잡은 막상막하의 야구 경기에 ‘나고야의 태양’ 선동열 선수나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 같은 특급 마무리 투수가 승리에 쐐기를 박으러 나온 것만 같았다. 요기베라가 말했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집마련을 향한 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찾아낸 매물은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속칭 ‘국민평형대’라는 84제곱미터의 방 세 개, 화장실 둘의 나홀로 아파트였다. 금액도 감정평가금액에서 한 번 유찰되어 본래 금액에서 팔십프로에서 입찰가격이 시작되는 귀중한 매물이었다. 내집마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입찰일이 속한 시월의 첫째주까지 매물은 취하되거나 기일이 변경되지 않았고, 나는 내 인생 첫 경매에 참가하러 남부지법 경매법정에 나아갔다. 경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턱시도를 빼어 입고, 자신감 있게 배팅하는 007의 제임스본드나 속사포 랩을 연상케 하는 소더비

미술품 경매 아니면 왁자지껄한 수산물 시장 경매가 생각났지만 법원 경매는 사뭇 생각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들어간 경매법정은 내가 참가하는 매물 뿐만이 아니라 꽤나 여러 건이 있었고, 사람들은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매물에 입찰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반반의 확률에 한껏 긴장되었다. 사전답사를 이미 마친 우리집 후보가 될 매물은 일층이지만 건물의 지대가 높고 필로티 주차장으로 인하여 보통 아파트의 삼층 높이에 위치한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의 아파트라 꽤 매력적인 보증자리였다. 보통 답사를 가지 않고 등기나 지도만 보는 사람들은 일층 매물에 매력을 느끼지 않아 입찰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그 집을 보러 직접 간 사람이 나 하나일 거란 보장은 전혀 없었다. 동일한 아파트의 다른 부동산 매물보다 낮은 가격을 썼지만 내가 생각한 예산 안에서 최선의 금액을 썼으므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내려놓고 결과만 기다리기로 했다. 경매사건번호가 불러지고, 입찰자들이 호명되었고, 나를 포함해서 단 두 명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두손 모아 기도하였고, 아내도 집에서 그 시각에 아이와 함께 기도드렸다. 마침내 나의 이름이 낙찰자로 호명되었고, 상대방 입찰금액을 알게 되고 나서 조금만 덜 쓸 걸이란 약간의 후회도 들었지만 얼떨떨한 기분과 함께 입찰감정가 중 십프로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노란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정말 다행이다.”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올 뻔 했다. 드디어 온전히 우리 것인 보증자리를 찾게 되었음을 실감했다. 벅찬 감정을 뒤로한 나에겐 다른 입찰자와의 경쟁에서 끝났다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남았다. 경매법정을 나오자 많은 분들이 몰려서 명함을 건넸다. 대출상담사 명함이었다. 쓸모가 있을 듯하여 챙겨두기로 했다.

낙찰일로부터 법원에 잔금을 치르는 납부기한까지 대략 두 달의 기간이 주어졌다. 이젠 주금공과 나의 원활한 교감만이 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나는 회사인 선릉역 근처의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자리론을 경매잔금 납부를 위한 '경락잔금대출'로 이용가능 한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은행지점에서 취급이나 업무를 해 본 직원이 전무하여 곧바로 주금공 서울남부지사로 문의하러 갔다, 아낌e-보증자리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경락잔금대출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낌e-보증자리론이 다른 보증자리론보다 대출금리도 낮고 가장 합리적이어서 아낌e-보증자리론으로 하기로 하고, 십일월부터는 보증자리론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식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서 신청서도 작성을 끝내고 시월의 마지막 날에 제출을 했다. 이젠 고객센터에서 해피콜을 기다려야 한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온다. 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매스컴을 타면서 주금공의 지사와 전화통에 불이 나는 시기였다. 시간이 촉박한데 온다는 해피콜은 오지 않았고, 인터넷 블로그를 찾아봐도 업무가 폭증하여 콜센터 전

화 오는 시기가 천차만별에다가 엄청 시간이 걸려 집 잔금 치루는 데 고생했다는 글들만 있었다. 불안한 나는 전셋집 근처 서울동부지사로 달려가 문의하기로 마음먹고 방문하니 마치 시장을 방블케 하는 소란함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주금공 임직원 분들도 기억하시리라 생각된다.

2019년 가을과 겨울은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민원과 업무가 폭증하여 콜센터도 지사도 통화가 어려웠다. 방문민원도 그러했다.

은행텔러 창구처럼 방문민원 전담 직원분들이 눈코 뜰새 없이 대면 상담을 하고 계셨고, 어렵사리 상담창구에서 차례를 잡아 콜센터 해피콜 지연에 관한 문의를 드려서 담당자 분을 천신만고 끝에 만나게 되었다. 담당자 분은 정성껏 답변하셨고, 여기서 각 은행 콜센터마다 해피콜 회신의 차이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계좌가 있었으나 급여계좌가 있는 국민은행으로 택했고, 하필이면 국민은행 콜센터가 가장 회신이 느리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한으로 할걸 하는 뒤늦은 후회가 있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또다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무한정 해피콜을 기다리냐 아니면 U-보증자리론으로 상담사를 끼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 아내는 시간이 촉박하고 특수한 지금 상황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의견을 주었고, 아낌e-보증자리론을 취소

하고, 그나마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U-보금자리론으로 다시 신청하자고 했다. 경매법정에서 받은 명함들의 전화번호를 돌려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상담사를 찾았다. 농협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였다. 신청서를 작성한 시간과 수고가 아깝지만 미련 없이 아낌이를 포기하고, 약간 높은 금리의 U-보금자리론을 선택하여 진행 속도를 높였다. 신청서류는 대출상담 직원분이 직접 직장으로 오셔서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낌e는 대출상담직원의 역할을 스스로가 하니 금리가 좀 더 낮구나 라는 걸 여기서 깨달았고, 이번엔 콜센터 해피콜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바로 매물이 소재한 서울서부지사로 신청 건이 넘어가서 안도하였다. 일단 문의할 담당자님이 배정되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담당자님의 성함도 기억한다.

지금도 동부지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담당자셨던 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жат은 전화문의에도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셨고, 이메일을 통하여 필요하신 서류들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주셔서 준비에 어려움이 없었다. 소득관련 서류에서도 아내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이 구분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회사에 문의하여 올바른 급여명세서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었다. 정말 그때는 얼마나 바쁘셨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민원 가운데 하나일수도 있는 나의 보금자리론 처리를

그분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주신 덕분에 지금 내가 이 집에서 글을 쓰고 있다. 주금공 안에서 그분의 앞날에 항상 밝은 길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지사에서 승인이 끝난 후에 이제 거래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은행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대출상담 직원께서 필요서류를 징구하여 은행에 제출하신 덕분에 한결 일이 수월해졌고, 아낌e에서 가졌던 약간의 마음고생을 덜어낼 수가 있었다. 은행에서 잔금납부를 처리할 법무사를 연결하였고, 약간의 수수료 흥정을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잔금 납부기한 이틀 전에 나는 휴가를 내고, 이사 갈 집이 소재한 강서구의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였다. 역시 은행 업무답게 써야할 서류도 많았지만, 이제 거의 골인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처럼 나는 설명을 듣고, 모든 칸을 빠짐없이 작성했다. 전셋집 계약서에 날인을 할 때만큼이나 떨렸지만 차분하게 서류에 날인을 끝마쳤다.

그날은 나의 삼십년 인생사에 기념이 될 만한 날이었다. 대출을 실행하고,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들을 계좌에 넣어 법무사 사무소에서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하자 나에게 남은 일은 명도를 진행하여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 일만 남게 되었다.

지나간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말 보금자리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여정의 끝을 볼 수가 있었을까 싶다.

주담대가 투기지역인 서울시 안에서 40퍼센트로 묶인 가운데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실수요자 요건까지 충족하면 70퍼센트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실수요자 요건보다 소득이 많아 70퍼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시기에 맞게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완화하여 주신 덕분에 어린 시절에 나의 집은 어디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드디어 내집마련이라는 문제에 보금자리론이라는 공식을 대입하여 이뤄낸 우리 가족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나는 이 글을 쓰면서 그 현재 안에서 살고 있으니 나의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의 행복으로 끝맺으려고 한다.

가끔 가족과 친구들에게 웃으면서 우리 집 중에 거실 지분은 주금공의 것이라고 말을 하곤 한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이 든든하게 자금조달에 버팀목이자 주춧돌이 되어주니 염려하지 않고 나머지 돈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물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부모님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분들께 주택 구입까지 도움을 구하기엔 그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빼앗을 수도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아이에게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들인 노력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찾아올 때 네 엄마와 아빠는 보금자리론과 함께 이 집을 장만하였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날을 꿈꾸고 있다.

이번 기회에 나의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게 연락 주신 주금공에 감사드린다. 주금공 임직원분들의 노고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가족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꿈의 실현에 커다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 힘든 와중에 작게나마 보람이 되셨으면 한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바람은 임직원분들의 수고로움을 칭찬드릴 수 있는 좋은 보상이 공사 차원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의 내집마련의 꿈에 큰 부분이 되어준 보금자리론과 다른 정책 대출들이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길 바라본다.

모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글의 제목처럼 자신의 집과 만나기를 기원하며 안녕 보금자리론, 반가워 우리 집! 🏡



정책모기지 '디딤돌' 살아
'보금자리론(으로)!'

지난 5월, 우리 부부는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이 너무나도 큰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책모기지 신청부터 감격스러웠던 입주까지, 길 다면 길고, 짧으면 짧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정책모기지 알아보기

결혼 4년차인 저희 부부는 약 2년 전 자녀가 생기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꼭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마음먹고 정책모기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역시 정책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 요건, 대상 주택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알고 있다고 방심했다간 자격 요건, 대출 한도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칫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다해 공사 상품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과 '보금자리론' 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결혼 4년차로 신혼부부에 해당되어 '신혼부부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두 상품을 저희 상황에 맞게 신혼부부 기준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혼부부 기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비교>

상품명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	(맞벌이 신혼가구) 8천 5백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대출한도	2억 2천만원	3억원
대출금리	소득, 우대조건, 만기별 상이함	신청시점, 우대조건, 만기별 상이함

대상주택 구하기

정책모기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뒤 가장 처음 들었던 의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5~6억 아파트가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 서울의 집 값은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책 상품 조건에 부합하는 아파트는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당시 저희 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너무 살기 좋잖아? 한번 알아보자!”

다음 날 인근 부동산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매물이 있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는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기준을 충족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기뻐서 그 주말 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갔고 당시 살고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교통과 편의 시설, 자녀가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학군 등 주변 인프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주택구입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매물로 나온 집은 아무래도 지어진지 오래 되어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좋은 점만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하기

가용할 수 있는 자금사정과 계약한 집의 매매계약을 종합해볼 때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도 3억원까지 대출이 되는 보금자리론 한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이 신청 월 기준, 보금자리론 보다 대출금리가 조금은 낮았지만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각기 조금씩 다른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감안할 때 굳이 그래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무렵, 언론을 통해 접한 반가운 소식!! 국토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 버팀목 등의 정책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제 기준으로 금리를 계산해본 결과 디딤돌대출 금리가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훨씬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기존 준비하던 보금자리론과 함께 디딤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던 중, 디딤돌 대출은 공사를 통한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 따라 심사과정 또한 공사와 은행에서 각각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다 보니 평일 은행 영업시간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 온라인신청 방법을 택했고

매매계약서, 소득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스크래핑과 첨부파일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은 상품별로 필요서류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잘 알아보고 각각 제출해야하고 보완해야할 서류가 있으면 담당 지사에서 그때그때 연락을 주셔서 보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모든 서류제출을 마치고 이제는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매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 3주 정도의 심사를 거쳐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기쁜 문자를 받았는데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대출이 진행되다보니 고객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정책모기지 상품의 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절차와 그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부지사 담당자 분께서는 대출 신청자가 심사과정에서 들 수 있는 많은 걱정과 그에 따른 수많은 질문에도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진심으로 응대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누구를 칭찬하는데 인색했던 저이지만 동부지사 직원분의 고객 응대에 큰 감동을 받아 공사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코너를 통해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칭찬 글을 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사결과가 통보된 후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고생하셨단 말씀과 함께 커피라도 한잔 보내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지만 감사한 마음만 받겠다고 거듭 거절하시고 되려 좋은 집에서 행복하시라는 덕담으로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셨습니다.

공사 콜센터 직원 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근무 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빠른 응대와 친절함으로 기분 좋게 해주셨고 지사의 담당 직원, 대출이 실행되는 은행까지 삼박자가 모두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은 말로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상품이 아닌,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정책이 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정책모기지 총평

애초 주택마련을 위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기로 결심한 후 블로그 등을 통한 다양한 후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엔 긍정적인 평도 많았지만 온라인 신청과정에서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콜센터 상담원의 정보력 부족 등 부정적인 평들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걱정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

니다. 하지만 정책모기지를 최근 직접 이용했던 당사자로서, PC 및 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앱을 통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신청, 서류 제출까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또한 콜센터 상담원 및 공사 담당직원의 응대는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 상품이다 보니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상품 기준 자격이 된다면 정책 모기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힘과 도움이 되는 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추천 드립니다.

늘 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여러분께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지 말고 정책모기지를 디딤돌 삼아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 ♡

제 이야기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8살/5살/3살 된 큰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홀로서기를 시작했던 64년생으로 현재 57세의 여성입니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그저 한가정의 주부로만 살다가 맞은 파경이었고 별다른 경험이나 특별한 기술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홀로서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이지 불빛하나 없는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 듯한 두려움과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친

정 부모님 두 분께서는 그 몇해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같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음적으로 기댈 언덕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였지요.

지난후에 돌이켜보자니 무모한 시작이었고 마음 만으로는 안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지킬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고 또 강했으며 그런 굳은 마음으로 시작한 걸음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라고는 전셋집 마련할 만큼의 자금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설불리 투자했다가 그 투자금을 날려 버릴까봐 차라리 집이라도 전세로 구하면 그 돈만큼은 보전 되겠지... 하는 마음에 빌라건물 (속칭 원.투룸 건물 주인세대) 에 입주해서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유소에서 주유도 하고 세차 하는 것도 거들고 허드렛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 6시부터는 과외공부 하는 학생들 픽업하는 일을 밤 12시 가까이 까지 하며 뼈가 부서져라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 했던가요? 앞친 데 뒤흔다고 저와 제 아이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살고 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 차리고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도 알아보고 문의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도 가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정말이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는 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였고, 저의 전세금은 주인세대라서 5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도 승소 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건물주에 대해 압류도 해보려 했지만 발 빠른 다른 세입자들에게 또 선순위도 놓치게 되었고 결국, 집을 비우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눈물만 났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눈물이나마 났습니다. 저의 아이들 셋... 그 아이들과 함께할 작은 공간이 사라졌고 함께할 작은 공간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위태롭던 행복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다른 세입자들은 3천 5백만원 이하라고 전부 보전해주는데 나는 5천 5백만원이라고 한 푼도 보전해 주지도 않고 아니면 3천 5백만원 이라도 보전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한 논리지만 그렇게라도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법 만드시는 분들한테 말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이들 친가로 억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여년을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아이들과 그렇게 부비고 살다가... 텅 빈 아이들 방을 보고 있으려니

벽에는 곰팡이도 피어있고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해지더군요. 그런 집에서 더 이상 살지도 못하겠지만 의욕도 버틸 재간도 없더군요. 그나마 버티고 버텨서 그렇게 두달 여를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이때는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다니던 주유소에서 당시 주유소에 기름 (가솔린, 경유, 석유 등등)을 배달해주시던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 하시던 기사님이 참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주유소 사장님 와이프 즉, 주유소 사모님인 줄로 오해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 기사님도 혼자 되셨고 저간의 사정을 알고 나서는 저에게 더 마음이 쓰이셨고 저 또한 그분이 참 괜찮은 사람이 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던지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지금은 더할 나위없는 저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그분의 상황도 저 못지않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기대고 싶은 언덕이 생겨난 기분이었습니다. 친가로 보낸 둘째 녀석이 잘 적응을 못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운명이라는 것이 시작 되는가 봅니다. 혼자 원룸이나 얻어서 살아 볼까 하다가 막내아들 문제도 있고 그 기사님과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셋이서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없는 작은 투룸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활이 순탄할 리만은 없었습니다. 워낙에 서로 거의 빈털터리로 만나다보니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월세에 월세로 전전하였어요. 5층짜리 오래

된 아파트 꼭대기 층이면서 가장자리쪽으로도 살면서 옷풍이 심해서 겨울에 등은 뜨거운데 코는 시려운 경험도 해봤고 중앙난방 방식인 주공아파트에도 살아봤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월세 아끼려고 옆동으로 이사도 가봤고 아파트 관리비가 아까워서 일반 주택 2층에 월세로도 살아 봤고 그렇게 월세로 월세로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라며 씩씩하게 잘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던 중 경매로 날아간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저는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대구까지 쫓아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지금 나는 아이들과도 헤어져 사는데 그 집 앞 현관문에는 비싼 요거트 제품이 배달 주머니에 담겨져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저런 거 먹이면서 사는데 나같이 피해 본 사람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의 말도 없이 파산 신청이나 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파산 신청 했겠습니까마는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었으면 덜 억울했을 겁니다. 이 나라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정말이지 원망 많이 했습니다. 법은 법대로 내 돈 한 톨 못 받게 해놓고 또 지금에 와서는 저런 인간 파산 신청 받아들여 주고 내가 한 달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단돈 얼마라도 받게 해달라고 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원망 많이 했

습니다. 이 나라 법을 이 나라 제도를... 그렇지만 잊기로 했습니다 아
니, 잊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아이들이 살 수 있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용상태가 좋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었고 지금의 집을 사서 내 집으로 이사를 하
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비록 대출이 많아서 은행 집이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하였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4%대의 이
자율.. 상환기간30년.. 저희부부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부담이 되기
도 하였고 잘 커서 이젠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괜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며 고민도 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
닐까 라며 후회도 났었습니다.

그때 무렵 ‘서민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시행한다는 발표를 접하
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청을 하게 되었고 대상자로 선정 되어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나라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었지만
산정 기준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10여년을 혼자서 아이들 키울
때도 수입도 기준 이상이다 (월200) 또 소유 차량도 배기량이 기준
보다 크다는 이유와 건강 보험료가 5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급식비
지원,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혜택... 그리고 묶여 있던 전세금도 재산으

로 평가되어서 그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이
셋 낳으면 애국자라더군요 양육비, 유치원비용 등등. 여러 가지 혜택
이 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혜택도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
으로.. 우스갯소리로 나는 예전에 세금만 내기만 했지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억울해~ 라고 남편에게 얘기하면 둘이 세금 내고 나중에 혜택
은 우리 애들 셋이 받을 수 있으니 억울해 하지 말라고,남는 장사이니
세금 떼먹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내라고 해서 둘이 웃었던 생
각이 나네요... 사실 서민안심전환대출도 기대 별로 안하고 그냥 보여
주기식 정책이겠거니 여겼었습니다.

근데 막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실행에 옮겨지면서 비슷한 월 불입
금으로 2%대의 이율에다가 상환기간도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
나 단축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법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지난 세월을 겪으면서 있는 사
람들을 위한 것,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며 자신이 영리하지
못하여 스스로 법이나 정책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았나 또 이용하지
않고 의지하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을 계기로 지금까지 내가 너무 없는 것 못 가진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서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할 것들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우리 명의지만 실소유주는 은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더라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더라도 내 집에서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느덧 30대가 되어 버린 우리 딸에게 이 체험 수기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맘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지난 세월 모두 써봐 엄마... 하더군요. 그런 세월 얘기하면서 기쁨도 슬픔도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도 힘든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았던 젊은 시절을 보냈고 법과 나라와 제도에 배신감 느끼고 속상해 하면서 그 시절을 힘들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절망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누릴 수 있고 보호받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던 지난 시절 .. 50대 중반이 넘어서서야 마음이 평온해 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계절마다 피워지는 꽃도 보이더군요. 그동안은 볼 겨를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보호받는 기분 이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로 바뀌면서 마음이 더욱 편안하게 된 것 같아요. 20년이면 우리 애들 힘 빌리지 않고도 우리가 마무리 할 수 있을 거라 믿으니까요.

단순히 이자율 그리고 기간이 단축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등바등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이 때에 힘들게 일하는 해당 의료진의 부단한 노력에 맘이 써지고 지켜야할 수칙도... 그렇게 나 하나의 노력과 힘이 옆 사람 또 그 옆 사람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우리세상이 그렇게 나아지는 게 아닐까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른 가정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집 우리 가정에 만큼은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준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를 긍정적이고 따스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장려

김○○

아낌 없이 주는 나무

나의 이름은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이란 영화가 개봉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나는 '84년생 김지영'이라 말하곤 했었다. 그 당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몸과 마음이 지쳐 벗어나고 싶었을 때 마음만이라도 편히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간절히 필요했었다. 다행히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 덕분에 우리 네 식구가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금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준 이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홀로 계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요즘 보기 드문 착한 며느리였다. 나의 엄마도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고3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자란 추억이 있기에 결혼 전 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혼자 계신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선택은 나에게 당연했었다.

둘만의 신혼생활은 없었지만, 주택 1, 2층에서 함께 거주하며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요즘 보기 드문 2세대 가족이라는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았다. 그러나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나도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전문직에 종사했었고 늘 퇴근하면 피곤해 집에 가서 그저 쉬고 싶었다. 하지만 국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기에 항상 저녁 메뉴는 나의 숙제가 되었다. 매일 장을 봐야 했고 국을 끓여야 했다.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혹시나 찐까... 혹시나 반찬이 모자라다 말씀하시진 않을까... 그때마다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엄마가 이렇게 사셨구나...'

그 당시 엄마의 전화가 잦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기에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안부 전화였던 것 같다. 그런데 나도 가족에게 헌신적인 엄마를 보며 자라왔기에 늘 괜찮다고 시아버지께서 잘해주신다 말했었다. 엄마가 혹여나 속상해하실까 힘든 일은 감춘 채 그저 좋다고만 했다.

다음 해 첫째가 들어섰고 임신을 알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첫 아기가 보니 늘 불안했고 소중한 아기가 어떻게 될까 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음식도 가려가며 먹곤 했다.

그러나 남자는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지식한 분이셨기에 만삭이 돼 몸이 무거울 때도 시부모님 밥을 챙겨드려야 했고 제삿날이 되면 제사음식을 도맡아 해야 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괜찮은 듯 참고 참다가 끝내고 올라와 가슴을 쥐고 엉엉 울었다. 그때마다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고 옆에서 많은 위로를 해주었다. ‘그래, 남편 하나는 잘 만났어.’ 그렇게 나를 다독였다.

첫째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친정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리... 아빠의 삼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빠 옆을 떠나지 않았다. 삼우제를 끝내고 난 후 뒤늦게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양수가 없어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첫째를 제왕절개로 낳았다. 부모님 삼일장을 지내며 물이 흥건히 나왔었는데 그게 양수였나 보다. 하지만 그때는 내 몸을 생각할 정신이 없었다. 슬픔에 나의 아기도 잠시 잊은 것 같다...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말로만 듣던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이의 100일이 되기 전까진 새벽에도 깨서 우는 아이 돌보느라 잠을 잘 수 없었고 나의 하루는 오로지 아이를 돌보는 데만 쓰였다.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를 신경 쓸 여유가 나에겐 없었고

그런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육아만으로도 나에겐 벅찬 하루들이기에 모른 채하였다.

결혼 전 시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술버릇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잠시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저 넘겼었다. 그저 내 눈에 비친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점잖은 분이셨다. 그런데 그 섭섭함이 폭발하신 걸까? 지금껏 자제하셨던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나에게 섭섭했던 이야기를 하셨다. 그 섭섭함이 이해는 되었기에 밥을 차려드리고 함께 있도록 노력했지만, 나의 행동이 시아버지를 다 만족시켜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다. 점점 더 알콜 의존이 심해지셨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술을 드시며 말이 거칠어지셨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인해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다. 엄마가 해주신 말이 생각나서... ”어른한테는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져...”

점점 더 고부갈등이 깊어졌고 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래도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기에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고 다음 해 둘째가 태어났다. 시댁은 손이 귀한 집이다. 시아버지가 아들만 넷 있는 집의 장남인데도 자식 있는 집이 우리뿐이니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아들을 원하셨을까...?

하지만 첫째에 이어 둘째도 딸이었고 시아버지는 둘째가 태어난 날도 술에 취해 병원에 한 번 오지 않으셨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와 다른 차가움에 어찌나 서럽던지... ’나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둘

째예요.... 똑같이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첫째를 키우고 나니 둘째는 훨씬 보기 수월했으나 연년생의 타이틀은 대단했다. 둘째가 돌 되기 전까지 빠지지 않던 살들이 다 빠져 40킬로대로 진입했고.... 밥 먹을 시간조차 나에겐 없었다. 첫째 때 낸 육아휴직 기간이 끝났지만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오로지 육아에만 전념했고 혼자만 하는 육아에 몸이 지쳐갔다. 그런 나에게 세끼 밥을 차려주기 원하는 시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항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기 싫었다.

그래서 한 더운 날에도 둘째는 업고 첫째는 유모차에 태워 밖에 나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 다니며 아이들과 밖에서 지냈고 저녁쯤 되어 녹초가 돼 집에 돌아왔다.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나가 있으니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시아버지와 부딪치는 게 더 싫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후회되었다. 처음부터 함께 살지 말 것일.... 두 아이와 함께 마음 편히 지낼 내 집 하나 있는 게 나의 소원이 되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지만 내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다.

나의 신혼집은 남편이 이전부터 살고 있던 오래된 주택이었다. 그런데 2층은 비워진 지 오래된 상태라 벽지엔 곰팡이가 가득했고 부서진 싱크대, 보지도 못할 화장실.... 거기다 신발장 하나 제대로 없었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결혼 전 모은 돈과 부모님이 주신 신혼 자금으로 리모델링을 한 후 신혼을 시작하였다. 주택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다. 곳곳에 하자도 생기고.... 생각지 못한 지출이 늘어갔다. 비가 오

는 날이나 두 아이 안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자식이 생기니 저축도 쉽지 않았고 결혼 당시 있던 돈은 모두 집수리에 써 가진 돈이 없었다.

다행히 결혼 전 넣어둔 주택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았고, 난생처음 청약신청을 해보았다. 둘째 덕분에 다자녀 특별분양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당시 180:1이라는 높은 경쟁률에 당첨이 되었다. 그렇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소원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째는 나에게 온 천사’였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일은 힘들었다. 내 생애 억이란 돈은 없었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다. 분양권을 팔아 월세라도 얻어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원룸에 가기로 쉽지는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마음의 병도 심해졌다.

늦은 밤 내 가슴을 치며 울다 소리를 지르고 새벽에 뜬금없이 나가 무작정 길거리를 서성이고.... 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내 삶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질 때쯤 한 사건이 일어났다. 시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남편을 폭행하였고 지켜보던 나와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늘 나와 시부모님 사이를 중재하던 남편도 이 일로 인해 시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젠 더 이상 함께

할 수는 없었다. 그때부터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직 대출신청 전이었지만 모바일로 대출조건과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였고 계약금의 70%나 대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한없이 기뻐했다.

스마트 주택금융어플을 통해 간단히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이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요건을 맞추는 동안 나는 집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전 우연히 가본 아파트가 생각났다. 몇 달 전 그날도 어김없이 술 취한 시아버지를 피해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 지하철을 타고 대구수목원으로 향했다. 지하철에 내려 큰 도로변을 걷다 우측을 보니 양가 쪽 은행나무들이 쪽 들어서 있었고 노랗게 물든 단풍들로 가득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은행나무의 단풍들로 인해 그 길은 반짝이는 황금길 같아 보였다. 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황금길을 걷다 보니 산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이곳에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되뇌어 온 적이 있었다. 그곳을 되새기며 네이버로 매물검색을 해보았더니 산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 매물 한 건이 올라와 있었다. 다음날 부동산을 찾아가 그 집을 방문하였다.

문에 들어서서 베란다 쪽을 보니 산속에 우거진 나무들이 보였다.

순간 마음이 쩡해지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우린 바로 그 집을 계약하기로 하였고 분양권을 팔아 계약금을 지불 할 수 있었다. 20년 된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나에겐 운명과 같은 집이었다.

다행히 대출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 후로 진행된 은행심사도 별 탈 없이 잘 끝이 났다. 그렇게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 덕분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비록 30년 동안 그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그 돈을 매달 저금한다 생각하니 그저 고맙기만 하다.

20년 된 아파트라 모든 게 낡아 있었지만 우린 살면서 고쳐가기로 하고 도배, 장판만 한 후 서둘러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렇게 이사 온 후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서일까...? 남편과 나의 사이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다. 서로의 힘들을 알기에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가 되었다. 나 또한 대출금을 함께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둘째를 좀 더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들 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만 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흔치는 않았다. 다행히 나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신 고마운 사장님을 만나 하루 4시간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 가거나 아픈 날은 흔쾌히 쉬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장님과 우리 둘째의 생일이 똑같아서 어찌나 놀랐는지... 우연이지만 숫자 7이 많은 날 둘째가 태어났고 그 후 다자녀로 분양권 당첨이 되고... 그리고

이곳! 7층으로 이사 왔다. 행운의 숫자 7이라지만 나에겐 모두 운명 같은 일들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지난 일들을 회상하니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네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소중한 우리 집이 있어 오늘도 행복하다.

요즘은 베란다에 앉아 푸르른 산을 보고 있으면 문득 '시아버지, 술 그만 드셔야 할 텐데...'란 생각이 들곤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운 마음도 점차 사그라지는 것 보니 우리 함께해야 할 가족인가 보다.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뿔 그 날이 언젠간 찾아오겠지? 그날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로를 부둥켜안고 싶다.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장려

진○○

보증자리를 찾아서
-아낌없는 보증자리론과 함께-

1

언제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이 있다. 그 동안의 여러 경험들로 담담하게 대응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들으면 처음 들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나에게 엄마는 말했다. “우리 집 알아봐야겠다.”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해 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말은 아니었다. 가슴 한 구석 미진하게 남아있던 불안감, 집에서 안락함을 누릴수록 더해졌던 불안감, 예상해왔던 불안감이 다시

현실이 되었다. 엄마의 한마디에 나는 대학교 1학년 겨울로 돌아갔다.

평생을 제주도에서 살아온 나는 타 지역의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운이 좋았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는데 걱정했던 것 보다 수월히 들어갔다. 신입생은 기숙사 거주가능여부가 학기마다 결정되는 재학생과는 다르게 1년 동안 지낼 수 있어 나에게 최고의 기회였다. 그렇게 나는 거취에 관한 큰 고민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1년 동안의 기숙사 생활이 나의 대학시절 중 덜 배고프고, 덜 외로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당시엔 몰랐다.

결코 길지 않은 1년이 지나고, 나의 기숙사 거주가능여부가 발표되었다. 탈락이었다. 한 번도 주거문제로 걱정해보지 않은 내가 처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렸다. 유난히 춥던 그 겨울 나는 내가 머물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나의 마음은 더 얼어붙었다. 다행히 방을 구하고 이사까지 마쳤지만, 얼어붙은 마음은 녹아내리지 않았다. 그 곳에서의 생활도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는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았다. 고시원에서, 기숙사에서, 친구의 집에서 가릴 것 없이 내가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면 머물렀다. 그것이 대학생활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이었다.

그 시절 나의 모습은 샤미소의 「그림자를 판 사나이」 속 주인공 술레밀 같았다. 그림자를 잃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던 술레밀은 모든 것을 잃고 중고장화를 한 켤레 구입하는데, 그 장화는 한 걸음에 7마일

을 갈 수 있는 마법의 장화였다. 그 장화를 신고 술레밀은 세상을 방랑하게 된다. 본인의 목적과 속도가 아닌 장화의 목적과 속도로, 내 목적과 속도로 살지 못하던 내 삶이 술레밀의 삶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속도에 멀미를 이기지 못하고 5년의 타지생활을 마치고 엄마의 곁으로 돌아왔다.

-
2

어린 시절 엄마는 이사를 자주 다녔다. 이사를 간 엄마가 낯선 동네에 적응하기 전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전에 이사를 가야만 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어린 시절을 추억할 만한 동네도, 같이 자라온 동네 친구도 없다. 잦은 이사로 지친 엄마는 자연스럽게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을 갈망했다. 엄마는 가정을 꾸리면 가족들과 함께 한 곳에 오래 머물며 그 동네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안정감을 바라던 엄마는 평생을 한 곳에서 살아온 아빠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해에 엄마는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 결정을 하는 것에 망설임은 없었다. 엄마의 두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수그러들지 않고 커졌기 때문이다.

두 마음은 엄마의 아이들이 안정적인 토대에서 흔들림 없이 곧게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과 엄마의 엄마, 아빠의 인생에서 이사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대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의 집이 필요했고, 우리는 조그마한 텃밭과 넓은 마루를 가진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엄마의 마음에 뜨거운 여름의 해가 떠올랐다. 내 유년시절 기억도 그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그 집에서 엄마의 햇빛은 짙게 내리쬘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았다. 나와 동생도 그 동네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추억을 만들었다.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나를 반겨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았고, 근처 골목골목 사는 친구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며 물러다니는 것도 좋았다. 가끔 남은 시간에 문구점에서 산 간식을 들고 친구네 집에 놀러가는 것이 그 시절 최고의 낙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엄마의 여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살아 인생의 변화구가 필요했던 아빠는 우리를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이유로 엄마의 형제들은 수시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며칠을 머물다가는 것은 부지기수였다. 그로 인해 엄마는 엄마의 가족들과 불

화가 생겼다. 설상가상 엄마는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다. 엄마는 재수술과 오랜 시간의 재활로 약간의 불편함을 가진 채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엄마가 일상으로 돌아온 후, 우리 모두는 그 집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 집이 주는 안락함은 사라진지 오래였고, 집에서 받은 상처들로 느끼는 절망감이 크게 다가왔다.

나의 열아홉 겨울, 우리는 그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날 때도 망설임이 없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집에서 생긴 상흔을 마주하기가 괴로웠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릴 여력이 없던 엄마는 임차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 후, 아직도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우리는 두 번의 이사를 겪었고 세 번째 이사를 앞두고 있다.

-
3

멀미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온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술래미 같은 삶이 벽차 돌아온 제주도에서의 삶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엄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내 마음의 짐이 더욱이 무거워졌다.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엄마가 안정감을 누릴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다. 20년 전, 집을 사기로 결정한

엄마의 마음이 나에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집을 매매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주택금융공사가 아니었더라면 쉽게 내리지 못할 결정이었다.

사회초년생으로 넉넉지 않은 월급과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내가 원하는 대출 조건은

1. 내 형편에 맞게 장기간 차근차근 나누어 갚을 수 있고,
2.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이 고정적이고,
3. 부담스럽지 않은 금리,
4. 무엇보다 중요한 대출을 받기까지 최소한의 은행방문이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었다.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이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더 이상 주저할 게 없었다.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금리가 더 저렴한 아낌e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했다. 신청 후, 내가 불안을 느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출금을 수령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수월했다.

3월 17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신청

3월 18일 지정한 은행의 유선 상의 신청대출안내

3월 23일 대출 신청할 때 전자스크래핑으로 제출되지 않은 서류제출

4월 1일 약 10일 간의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이 결정됐고, 은행의 제출서류 안내문자

4월 3일 서류제출과 작성을 위해 은행방문

4월 6일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약정

5월 4일 대출금 수령을 위해 은행방문

나는 단 두 번의 은행 방문으로 30년 동안 원금균등상환으로 금리 2.03%의 대출을 아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었다. 주택을 매매하기 전 가장 막막하게 느껴졌던 자금마련이 간편한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되었다. 주택금융공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수월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와 함께 예측할 수 없던 거취의 문제로 인한 나의 떨미가 끝났다.

새롭게 마련한 보금자리는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중이다. 약 10년 만에 다시 마련한 보금자리로의 입주가 성큼 다가오면서, 우리 모두는 들떠있다. 새 보금자리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이전 보금자리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흉터 없이 잘 아물기를 바란다. 나의 마음에 뜨거운 여름 해가 떠오른다.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장려

평○○

날빛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세상이 온통 푸르다. 바람결에 전해오는 맑은 새소리에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귀를 풀어놓는다. 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아파트 한 칸이 내 이름 석 자가 들어간 우리 집이다.

몇 년 전 어느 가을, 우리 가족은 전세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달라는 주인의 횡포에 속울음을 삼키며 먹먹한 가슴을 끌어안고 다른 전셋집을 구하러 바빠 발품을 팔아야 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전셋집을 찾기란 무척이나 고된 일이었다. 돈이 있다면 그까짓 기간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그럴만한 상황이 못 되었다.

두 아이 키우면서 전세를 면하지 못하는 살림은 아이들이 커 갈수록 더 버거워지기만 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예 접어두었다. 남편과 함께 전셋집을 구하러 외곽으로 가던 중, 남편이 문득 차를 돌려다. 평소에 본인이 관심 있게 보던 아파트가 있으니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면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산을 깎아 아파트를 세운 작은 단지였다. 들어가는 입구가 한참이나 걸렸다. 이사 날짜에 맞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어느 한 집을 본 순간, 내 마음에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너무나 맘에 들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것도 큰 매력이었다.

우리가 지불 할 수 있는 돈은 그 집 가격의 반도 못되었다. 이래저래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니 우리는 불가능 하다고 했다. 실망은 컸다. 그 집에서 꼭 살아보고 싶었던 나는 남편과 의논하여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하게 되었다.

행복했다. 모든 것이 긍정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얼굴에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다. 대출금이 커서 시쳇말로 안방 한 칸만 온전한 우리 집이고 나머지 모두는 은행 것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런 날들이 한 달을 넘기고 두 달을 넘기다 보니 생활비가 점점 퍽퍽해져 갔다.

3년 거치 30년 약정의 조건으로 어느 시중 은행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자율이 높아서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많았다. 그래도 남편과 나는 내 집을 장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주말도 쉬지 않고 돈을벌러 다니던 내게 큰 먹구름이 몰아닥쳤다.

암이라고 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그날, 암 진단을 내리고 다음 일정을 설명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이미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고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동토가 되어버렸다. 혈압이 무려 180을 웃돌았다.

넋 나간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물을 보았다.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다.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 내 앞에서 무너졌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자책하기도 했다. 내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뜨거운 남자의 눈물을 한없이 쏟아냈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날처럼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니 앞으로 내 손길이 필요할 날들이 많았다. 아이들 결혼식 날 어미로서 화촉을 밝혀줘야 하고, 몸이 여린 딸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친정엄마로서 곁을 지켜줘야 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모든 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했다. 신체 한 부위를 도려내는 전절제 수술과 여덟 번의 독한 항암, 그리고 스물다섯 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던 넘게 견뎌내며 오로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침이 되면 모든 식구가 각자의 자리를 향해 밖으로 나갔다. 남편은 직장へ 가고 아이들은 학교로 갔다. 텅 비어있는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과 나무들을 초점 없이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내 일과였다.

항암제 주사는 나를 한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마음은 몸에 의존한다고 했던가. 호중구 수치가 바닥나니 내 마음 또한 밑바닥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어느 구절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만 수없이 되뇌다 보니 내 몸은 어느덧 암울한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렸다.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대출금 거치 기간이 이미 종료되고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상환되고 있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보험금 하나 없이 진행되었던 나의 암 치료 때문에 통장 잔고는 늘 제로였다.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비와 아이들 뒷바라지, 그리고 대출금 이자에 원금상환까지 하다 보니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6개월마다 재 산정되는 변동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매월 카드 실적 높이는 데 신경

써야 하고 예금이나 적금도 일정액 이상 불입해 놓아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우리 부부는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정든 집을 팔기로 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다.

힘든 투병 중이었지만 이사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부서지는 아침 햇살에 모든 사물이 날빛으로 물드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몸도 그 기운을 받아 치유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세상을 향해 다시한번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집 이기에 화분에서 기르던 화초들도 화단에 옮겨 심을 수 있었다. 그런 소소한 일조차도 내게는 의미가 컸다. 그렇게 애정이 깃든 집을 팔려고 하니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다. 내놓는 사람은 많고 찾는 사람은 없으니 급매만 아주 가끔 있다고 했다. 참으로 난감했다.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이럴 때 나오는구나 싶었다.

어느 날, 남편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니 얼굴이 무척이나 핏색이 져 있었다. 체중이 15킬로 빠졌다고 했다. 그동안 얼마나 이래저래 맘고생이 심했으면 살이 저토록 빠졌나 싶어서 가슴에 맺돌을 얹어놓은 기분이었다. 가장이라는 명예를 잃어지고 살아가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조용히 뜨거운 눈물만 떨어뜨렸다.

좌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때에 TV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눈과 귀를 초 집중시키며 시청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 믿으며 난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준비했다. 그러나 행운은 우리를 비껴갔다. 알아보니 우리 집 고시가격이 기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했다.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즈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뭐라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 정보는 나를 또다시 움직이게 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남부지사에 전화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집 근처 은행을 통해 드디어 저금리의 보금자리론을 대출받게 되었다. 그때 친절히 상담을 해 주었던 남부지사의 젊은 남자 직원이 저금도 고맙게 느껴진다. 그분을 통해 나도 누군가에게 상대의 상처 난 마음을 보듬어 주고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도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이율이 낮아지니 숨 가뻐던 호흡이 한 호흡 쉴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볍다.

현재는 나도 지인의 소개로 어느 카페 주방에서 단시간 설거지 알바도 하고 있다. 비록 소소하지만 내가 버는 돈 일부가 온전한 우리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힘든 일이 즐겁게 느껴진다.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틈틈이 알바해서 생활비로 내놓고 있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해도 아이들이 이미 철이 들어버렸는지 괜찮다며 계속 일하며 공부하고 있다.

30년 후면 내 나이 팔순을 넘기게 된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 내 마음이 그러하다.

내가 비록 암이라는 불청객과 평생을 동행해야 하는 몸이지만 나와 남편 선에서 모든 빚을 갚고, 아이들은 본인이 번 돈으로 종자돈을 만들어 미래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햇볕을 받아 빛나는 나무 잎사귀들 사이로 집 주변을 걷다 보면 납부러운 것이 없다. 어렵게 장만한 집이니만큼 우리 가족 모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건강하게 살기를 염원한다.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가작

이○○

억척 내 집 마련기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여타 지방 상경기를 가진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지만, 나름 타지 생활에 고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집안 형편이 녹록지 않아 당시 ‘잠만 자는 방’을 얻어 학교와 집이라고 하기는 조금 머쓱한 말 그대로 잠만 자는 방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집에 손을 벌리지 않으려면 장학금을 타야만 했고, 강의가 없는 날엔 막노동을 해야 하는 뻘한 신과 장르의 소위 ‘흙수저’의 삶이 굴곡지

게 펼쳐지는 나날 가운데 공사판 높은 곳에 올라 도심을 내려다 볼 때면, ‘와... 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쌀밥을 묵고, 자가용을 끌고,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 엉덩이 붙이고 있을 수가 있나?’ 마냥 부러움에 속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아득바득 모으면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나?’ 기대감 보단 의구심이 늘 짙게 깔리게 되는 자문자답이었다. 특유의 부지런함 덕분에 대학교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은 내고도 좀 남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착실히 모아온 덕에 이를 종자돈으로 몇 번의 월세를 거쳐 서울 약수동에 3천이라는 믿기 어려운 금액으로 단칸방 전세를 마련 할 수 있었다. 9평 단칸방, 집에서 서울 N타워가 수평으로 보이는 높은 고도, 그리고 저렴한 다세대인 빌라 인지라 조선족 분들이 다수 주거하셔서 양고기 굽는 냄새가 주말마다 올라오는 환경이었지만 전셋집을 구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인생에 행운은 쉽표 없이 달려온 젊은 나에게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신기한 것이 결혼당시에 아내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신혼집을 당시 내가 살던 약수동 빌라 단칸방에서 꾸려 시작하겠단다. 시작이야 뭐 젊은 호기에 할 수 있다손 치지만, 십 수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 돌이켜 보면, 여자로서 참 아둔한 선택이요 남자로서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딸아이가 생겼어도 맞벌이에 단칸방뿐이었던 우리는 입술을 깨물

고 딸아이를 부산의 친가에 맡겼다. 더 잘살아 보겠다는 핑계로 여태껏 고생하신 나의 부모님께 몹쓸 짓을 엮고야 말았고, 아내에게는 눈물의 석별의 정을 매달 껴계끔 하였고, 딸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지 못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을 거야’라며 내 자신을 합리화 했고, ‘딸에게 조금만 더 나은 환경을 줄 거야’라며 내 자신을 채찍질 했지만 서울↔부산 기차길 위에 흘뿌린 우리 가족의 눈물은 적잖은 양이 되었을 것이다.

집 하나만... 자그만 집이라도 세 가족 살 수 있는 집이 가지고 싶었다.
선망의 대상에서 집착이 되가는 듯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더 악착같이 아끼고 모았지만 통장에 잔고는 매번 제자릴 맴도는 듯 했다.

대출받아 집사면 되지 않느냐는 주변의 조언에도 나는 아버지 사업실패로 집에 빨간딱지 붙이는 광경까지 목격하며 성장해온 환경 탓에 부채라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났었다. 더욱이 담보물건 하나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은행 대출의 문턱은 높게만 느껴졌고 설사 대출이 된다고 치더라도 거액의 부채에 붙어오는 이자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빚을 지는 것에 대한 대비와 긴장감, 상환계획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집이라는 안정된 환경을 가족에게 제공하고 시간을 들여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간다는 헤안이 나에게에는 없었다. 그 지혜만

나에게 있었더라도, 딸이 꼬무락꼬무락 성장해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며, 어두컴컴한 달동네 단칸방에서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았어도 될 것이었다. ‘열심히 저축해서 집 사야지!’라는 월급쟁이에게는 알고 보니 터무니없는 고집을 꺾고 나서야 마침내 신혼부부특별청약이니, Shift니 하는 주택 정책에 부지런히 도전해 보았다. 하지만 이 경쟁률 역시 예사롭지 않아 당첨되지 못했던 차에, 경기도 외곽 지역에는 빌라 주택이 저렴한 것을 알게 되었고 구경이나 해보러 가자며 아내 손을 붙잡고 가서 20평 남짓한 자그마한 집을 보는 중에 “주변에 학교도 있고요, 학원 차량도 앞에 많이 오고다녀요”라는 중개사의 한마디에 아내는 반색하며 혹 했다.

어느새 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란에 서명을 하였다. 갑작스레 매입하게 된 주택이었지만, 우리 가문에서는 한국전쟁 후 3대에 걸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름을 최초로 올리게 된 ‘나’였으며, 무엇보다 어느새 부산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초등학생이 되어버린 경상도 사투리 찌나게 쓰는 딸아이와 드디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집장만을 하면 그동안 고생했던 설움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에 북받쳐 눈물을 펄펄 쏟을 것이라 예상했으며, 아내와 딸이 집에서 함께 잠들고 나면, 혼자 몰래 나와서 부동산등기부를 펼쳐놓고 원 없이

한 번 울어야겠다는 어설픈 작전도 세워놓았다. 콕티슈 하나 준비해 놓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펼쳐 놓고 자세를 잡았다. 찬찬히 다시금 읽어보는 와중에도 내 이름 석 자는 또렷하게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내집 마련인데, 별 감흥이 없다. 1억5천만원, 집값이라 하기에는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전세금 털어 붓고, 모아뒀던 돈 털어 붓고도 거기에 1억이라는 돈을 부동산담보대출로 받아야 했다. 조금의 고집은 남아서인지 이자만 내는 거치상환방법은 대출원금이 줄지 않으니 30년 상환의 원리금상환방식의 대출을 선택하였다. 부동산담보대출 1억, 30년 상환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4%에 시작한 이자율은 몇 해가 지나면 변동금리가 되는 조건으로 월 납입 고정비용도 부담스러울뿐더러 당장 이자율을 올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덤이었다. 등기부에는 내 이름뿐만 아니라 저당권자로 은행 이름도 함께 올라와 있으며, 매달 내야하는 대출 상환금에 “화장실만 내 것이고 나머진 은행 것에 월세 산다.”는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의 대부분의 핑계가 실감이 났다.

상환기간 장작 30년..대출계약기간이 종료될 즈음이 되면 나는 환갑을 넘기는 나이가 된다. 우리 딸내미 나이가 불혹에 접어들어서야 이 빛의 굴레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사위 불러놓고 인생 설교하며 끈대의 즐거움을 만끽함과 동시에 손녀 손자 율동 재롱잔치 볼 나이에 이 질긴 대출은 나에게 “1억의 이자와 원금을 갚으셔야지요?” 하며 매달 청구서를 디밀고 내 통장을 넘볼 것이 뻔하다.

감상에 젖어 올 짬이 없구나, 다시 육탄전이다. 상환계획표에 따른 대출 상환금과는 별도로 1년간 부었던 적금타면, 성과금 받으면, 비상금 좀 모이면 부분중도상환으로 대출금 상환에 때려 넣었다. 무척 더딘 속도였지만 대출 원금 잔액의 앞자리가 1억에서 9천, 9천에서 8천, 8천에서 7천까지 바뀌어 가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

또다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꾸역꾸역 저축하고 갚고 저축하고 갚고를 반복하면서 아둔하게도 혼자 뿌듯해하고 있을 때 즈음에서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뉴스, 인터넷, TV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틀기만 하면 관련소식이 나왔다. 초저금리에 자격조건이 어땠고, 접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나는 주택정책만큼은 ‘LTV’이니 ‘DTI’니 해서 나라에서 규제만 받아봤지, 혜택 받아 본 적 없다. 남들 덜컥덜컥 당첨된다는 장기전세니, 국민임대주택이니, 신혼부부특별청약이니 응모해 봤지만 죄다 미역국이었다. 십수년 간 속절없이 매달 3만원씩 빼가는 청약통장 깨버리고 주식이나 할까 하는 찰나였을 정도로 나는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공급정책보다 나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게 해주고, 적은 이자 비용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려는 가계 금융정책으로 나에게겐 입혀졌다. 아니 확실히 가계부채를 줄이 고자하는 정책이었다.

접수하는 텐 돈 안 든다. 그래 되든 말든, 한 번 접수라도 해보자.

대출기관과 이자율에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다. 쉽게 요약해보자면 ‘어쨌건 시중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지만 초저금리로 기간 짧게 바짝 갚으실래요? 아니면 적당히 낮은 금리로 적당한 기간 여유롭게 갚으실래요?’라고 묻는 듯한 촌촌한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다. 나는 15년 상환, 1.95%이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10년 상환의 더 낮은 이자율도 있었지만, 현재 대출 월 상환금보다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았다.

계산기 두들겨 가며 계산해 봐도 확연히 괜찮았다. 대출기간이 반 토막 날 것이 후련했으며, 1%대 이자율은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줄 것 같았다. 신청접수 첫날부터 확실히 반응이 뜨겁긴 한가보다. 온라인 신청대기자는 수만명이었고 서버는 미어터질 듯 했지만, 내심 ‘나 같은 사람 참 많구나.’란 생각에 위안도 얻는다. 희망은 가져보지만 당첨된 역사가 없기에 기대는 안하고 있던 와중에 뉴스를 듣자하니, 대출원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단다. 그간 빚지는 것 무서워하며, 차곡차곡 미련스레 대출 갚아온 성실했던 나날들이 나에게 상을 주나보다.

이것으로 기대감 한껏 상승이다. 이번엔 될 거 같다. 아니나 다를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걸 뭐 다시 내 집 장만한 기분이 든다. 2%이자 아낀 사실은 물론이요, 15년을 번 기분이다. 집의 절반은 정말 내 것이 된 느낌이다.

금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함께 다시금 목돈 저축해 중도상환 하는 노력 좀 첨가하면, 대출 조기 졸업 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틈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뱅킹에 들어가 상환스케줄을 살펴본다. 올해 안에 나의 대출원금 앞자리는 7천에서 6천으로 바뀌게 된다. 열심히 살다보니 나라 혜택 받아보는 날이 오는구나 하고 실감나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든다.

실제로 벌써 수개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보니, 단순히 저금리 대출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었다. 이자만 갚는 거치식 상환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금상환이 빠른 원리금균등상환 방법으로 갚아 나갈수록 빚이 줄어든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만큼 부동산 가치에 저축한다는 사실이 선연해진다. 다시 말해 대출을 갚아나간 것과 비례하게 나의 재산이 증식된다. 살아온 지 벌써 5년이나 된 집이지만 새집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덤이다.

요즘에는 곧 고등학생이 될 딸아이 방을 다시금 꾸며주는 재미가 쏠쏠하다. 선부를지 모르지만, 금번 정책 대출 혜택 덕분에 대출 다 갚으면 뭐하지? 라며 또 꿈을 꾼볼 수 있다.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가작

김○○

영원회귀
永遠回歸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니?”

찌는 듯한 무더위, 마음 또한 무거웠던 어느 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하고 계세요?”

“아니다...” (계산기 타닥타닥..소리만...)

“그냥 힘들면 이 집 팔고 엄마 마음 편한 곳으로 이사 가요. 힘든데

이 집이 무슨 소용이야.” (한숨만..)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갑자기 어려워진 형편에, 주택담보대출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모님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정리하고 형편에 맞는 새 보금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거 같아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십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뉴스 소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각 신청방식별 취급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저런 상품이 있구나, 세상이 좋아졌네..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지..?”

“그렇거예요 아마..엄마..”

“.... 내가 살아생전 다시 우리 집이 생길 수 있을까(쓴 미소만)”

십년의 세월동안, 전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금융정책 소식에 우리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일, 남의 일, 이라고만 치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저 말씀이 제 가슴이 다시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노쇠하신 부모님의 모습,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하신 당신들의 집.. 그걸 경제적 역풍을 맞아 정리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이제는 당신들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보듬어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이젠 내가 당신들의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 는 간절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의 저 마음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는 간절함에 ‘안 될 건 없다. 해보자.’ 마음으로 무작정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모르니 부닥치고 창피함도 있었고, 여러 은행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은행직원을 만났습니다.

“저 그렇게 아니라..저희 은행상품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걸 한 번 알아 보시는 게...”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은행직원의 한마디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스쳐들었던 어느 날 뉴스의 기억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 상황에 맞는 상품, 대출요건 등등 상품 설명을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상품설명 이 잘 되어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 모기지론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금자리론’이란 상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규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에게 적합한 상품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고정금리, 거기다 저리 상품. 망설임 이유도 없이 바로 대출진행을 했습니다. 대출진행을 준비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집을 다시 마련해드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게 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그 위함이 십년 전 그 날과 다른 위함의 마음으로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다시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렘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눈물이 났습니다. 대출승인이 나고 잔금까지 무사히 치렀습니다. 대출승인까지 한 달의 시간동안 준비하면서 힘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구나.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 대출거래 약정, 전자 근저당권 설정 등 기 방식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 취지에 맞는 정말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이 없고, 최장 30년까지 금리변동 없이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님 말씀처럼 따뜻한 경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회귀(永遠回歸)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지상(至上)의 기쁨과 슬픔을 지니고 영원(永遠)히 반복(反復)한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뭔가를 원하면 그 원함에 다가설 수 있는데, 곧 다시 “그 원함에 다다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힘든 상황에서 그 슬픔과 힘들을 벗어나기 ‘위함’을 원했고 곧 다시 부모님의 ‘원함’에 다다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 ‘원함’에 주택금융공사 이름처럼 이쁜 ‘보금자리론’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 가족도 절망 속에 그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집”,

짧은 단어지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도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느껴 왔고 겪었던 경험을 현재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 솔직히 이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마시고, 단지 “간절함”과 “용기”를 가지시고 주택금융공사에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얻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위함”과 “원함”을 겪으시고 “간절함”만 더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금자리”란 그 따뜻한 말처럼 그 무엇이 당신을 보듬어 주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보금자리가 되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습니다.”

“차도 막히고 길을 잘 못 들어서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다시 집에 잘 되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엄마.”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가작

박○○

병원 침대 아래
전기장판으로 만든 집의 이사 이야기

1987년 초겨울. 2살 터울인 형과 함께 나란히 배를 깔고 만화영화 ‘개구쟁이 스머프’를 보고 있을 때다. 차갑고 살이 에리는 (아리는) 초겨울 바람에 울렁거리다 금방이라도 벗겨질 것만 같던 회백색 슬레이트 지붕을 함께 덮고 있던 좁은 연립주택의 찹찹한 방바닥은 “6짚”, “8짚” 혀 짧은 아이들에겐 그리 쾌적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은 나와 형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엮드려 만화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연탄을 뎌지 얼마

되지 않은 차가운 방바닥에 자연스레 몸을 뚫지락 거리기 시작했고, 그런 내게 형은 상의를 말아 올려 맨살이 드러나게 배를 살짝 깐 다음 다시 방바닥에 엎드려 체온으로 방바닥을 덥히는 걸 따라하라고 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바닥을 덥힌 후 서로 자리를 바꾸어 다시 배를 깔고 엎드려 누우면 이상하게도 형이 데워 놔던 방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막 데워 놓은 바닥에서 세상에는 없을 법한 재미나고 행복한 만화속 이야기를 턱이 떨어지는 지도 모른 채 한참을 보고 있을 때쯤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형과 난 그제야 길게 벌어진 입을 다물고 엄마가 있는 쪽을 바라봤다.

“현진이 현표! 빨리 옷 입어!” 엄마는 ‘쫄쫄 쫄쫄’ 이란 소리가 날만큼 애달프게 돈을 숨겨두었던 방구석 장판 아래에서 너무나도 어두운 표정으로 다급히 그 돈을 꺼내며 말했다. 두 형제에게 엄마가 돈을 꺼낸 그 비밀스런 공간은 항상 “엄마! 까자 (과자)! 사줘!” 라고 말할 때마다, 근심어리고 측은한 눈빛을 감추며, 돈이 없다던 엄마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여기던 장소였던 까닭에 비밀 장소라기엔 너무나 눈에 띄는 곳이었다.

사실 엄마가 꺼냈던 그 돈은 사글세를 내기 위해 엄마가 힘들게 부업으로 모아놓은 돈이었다.

무능하고 게으르기까지 한 남편은 사글세를 가져다주긴 고사하고 엄마가 하고 있었던 부업거리를 패악을 부리며 팽개쳐 버리기 일쑤였는데, 그런 판국에 사글세가 밀려 가족이 모두 거리에 나왔을까 걱정스러워 아이들 과자 한 번 맘 놓고 사주지 못할 만큼 고이고이 가슴 아프게 모아놓은 돈이었던 것이다.

당시에 엄마는 왜 그 돈으로 과자를 사주지 못했는지 우릴 이해시키기엔 두 형제가 너무 어렸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때 비록 ‘땡깡’은 (투정, 떼) 지겨 댔지만 (부리곤 했지만) 당시 어린 두 형제 마음 아주 깊숙한 곳에 본인들도 모르게 자리해 있던 빈곤한 우리 집에 대한 근심은 어린 아이의 마음 한 면을 애늬은이로 만들어버릴 만큼 잔인한 것이었고, 그런 근심은 그 돈으로 과자를 사먹으면 우리 집이 망해 버릴 것이란 두려움과 죄책감을 만들어냈던 터에 엄마가 그 돈을 갑작스레 꺼냈다는 건 어린 나조차도 느낄 만큼의 불행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정말 큰 일이 벌어진구나.’ 평소 같았으면 만화를 끝내 다 보지 못한 까닭에 ‘땡깡’을 부리고도 주리 (잔돈, 거스름 돈)가 남았을 법했지만, 정신을 놓지 않으려 다부지게 어금니를 깨물고 빠르게 나갈 채비를 하던 엄마의 표정에 감히 우리 두 형제는 더 배를 깔고 누워있지 못했다.

가로등도 없는 산비탈을 엄마 손에 들려 깨금발로 걸어 도착한 곳은 아니나 다를까 갈 때마다 좋지 않은 기억뿐인 차가워 보이기만 했던 병원이었다. 그렇게 급히 응급실에 누워있는 입술이 바짝 마른 아

버지에게 다가갔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늘 화가나있고 크고 괴팍했던 평소 음성이 아닌 그저 짜증 섞여 힘없어 풀이 죽어버린 그 것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 날 아버지 엄마 몰래 돈을 빌려 오토바이를 샀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두 아이의 가장이라기엔 너무나도 철없이 얼큰하게 걸치고 달린 그 오토바이는 다리 난간을 들이 받았고, 아버지 그렇게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그 날 이후부터 우리 가족에게 시간은 너무나도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엄마는 그나마 있던 사글세 단칸방의 쥐꼬리만 한 보증금마저 빼야 했다. 집이 없어진 것이다.

집이 없다는 슬픔을 견뎌야한다는 것을 알기에는 그렇게 많은 눈치와 나이가 필요치 않았던 것일까? 초겨울 날씨가 차가워 불이 새 빨갛게 터버린 형은 홀로 친척 집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두 손을 호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었을 뿐 담담해 했고, 남겨진 난 엄마와 함께 6인용 병실의 아버지 병원 침대 밑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음에도 그리 크게 울지 않았다.

병원 침대 밑 전기장판을 깔 집. 병원 침대 다리 4개를 제외하면 벽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던 그 침대 밑에서 어린 나는 비록 찹찹했던 바닥이지만 배를 깔고 ‘개구쟁이 스머프’를 볼 수 있던 예전 곰팡내 스민 단칸방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놀이터도 장난감도 없었던 형제에게 그 단칸방은 형제끼리 약속하여 정해놓은 ‘노락질 (놀이)’ 감으로 가득했다. 형과 나의 낙서로 벽지 고유의 무늬마저 사라진지 오래인 단칸 방 벽면은 물풀이 울어 떨어진 너털거리는 도배지를 잡아 뜯을 때의 묘한 손의 쾌감과 ‘찌이익’, ‘치지직’ 거리며 찢어지는 재미난 소리에 시멘트 발린 시커먼 맨살이 들어나 빈곤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런 놀잇감을 다시 채워 넣기라도 하는 듯 엄마는 자투리 도배지를 구해다가 상처 난 벽면을 물풀로 커커이 덧 발라 고쳐냈었다. 나는 그렇게 엄마의 손길이 닿아 바람을 막을 수 있던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만 싶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가?”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오줌통을 나뭇가지 같은 손목으로 받쳐 들고 멀리 떨어진 병원 화장실에 비우고 돌아오는 나를 엄마가 칭찬해줄 때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물었다.

당시 우리 엄마는 억척스레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병원에서 조차 더욱 포악해지고 비뚤어지는 아버지로 인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오줌통을 치울 때마다 집에 가자고하는 아들이 눈물겨워, 그래서 함께 살 보금자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 아침 병원 회진이 끝나면 어망회사에 그물을 짜러 다니고, 밤엔 목욕탕 청소를 하며, 살기를 꼭 다짐했다고 한다.

엄마가 일을 나가 혼자 있는 시간동안 나는 대학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엔 TV가 있는 곳에 내려가 드라마

속 거실이 있는 서양식 집을 부러워도 했고, 가끔씩 대학병원 간호사 누나들이 사주는 도너츠나 검은 조청이 발린 꿀떡을 먹으며 놀기도 했다.

그 중 유독 많은 간식을 사다준 코가 눌러 주저앉을 만큼 검고 커다란 잠자리 뿔테 안경을 낀 간호사 누나가 있었는데 난 그 도너츠와 꿀떡 때문이었는지 그 누나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표 커서 뭐 될 거야?” 누나는 내 가느다란 팔을 붙들고 안경 너머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검은 눈을 뜨곤 그렇게 물어봤다. “현표 되고 싶은 것 없어? 현표 커서 아빠,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엄마 지켜줘야지.” 사실 난 그 때 ‘누나 남편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당시 누나에게 잡혀 있던 너무나 야윈 내 팔은 누나 애인이 되기엔 정말 될 법하지도 않았던 까닭에 골이 나선 볼에 바람만 불어 넣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당시 누나의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는지 모른다. 반복되었지만 싫지 않았던 누나의 그 질문을 난 오랜 시간 아버지의 병원 침대 밑에서 턱을 괴고 생각했다.

“국군이요. 국군될 거예요.” 끝내 국군이 되어서 누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은 못했었다. 그리고 군인이 되면 나라에서 집도 나오고, 입을 옷과 밥도 공짜로 나오니 집 없는 우리에게 딱 맞을 것 같단 그런 고차원의 (?) 복잡한 셈을 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간호사 누나에게 힘없이 집혀 있는 내 야윈 팔다리가 부끄러워 누나랑 결혼하려면 군인밖

엔 없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렇게 대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간호사 누나는 나에게 꼭 엄마를 지키는 국군이 되라는 편지를 남겨주고는 이내 보이지 않았다. 꿀떡 꿀떡 소리 내어 숨을 들이킬 때마다 짝조름한 눈물을 코 뒤로 넘겨야 하는 슬픔엔 난 이미 익숙해졌던 모양이다. 비록 누나가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르지만 난 담담하게 간호사 누나에게 말했던 꿈을 이루겠다 스스로 다짐했고, 그렇게 엄마는 그런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헌신적인 사랑으로 날 길러냈고 드디어, 병원 침대 아래 전기장판 밑에서 이사할 집도 기적같이 구해냈다.

‘여보 올 때, 신갈 오거리에 트럭에서 파는 통닭 두 마리만 사와. 가영이랑 같이 먹게.’ 퇴근 무렵 아내에게서 받은 카톡을 무시하기라도 하는 듯 나는 통닭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기사 링크를 집사람에게 보낸다. ‘여보 이 것 말이야. 우리한테 해당 되는 것 맞지?’

대학교 3학년. 내가 ROTC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만난 지금의 아내는 뿔테 안경 너머 눈동자가 너무나 순진해 보이는 아이였다. 나와 너무나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것들도 그리고 이야기할 것도 많았던지 난 그 아이와 학군 장교로 군인이 된지 2년 만에 결혼했다.

그렇게 난 군대에선 군인으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했고, 전역해서는 신입사원으로 다시 밑바닥부터 열심히 생활했다. 비록 시련은 있었지만 우리 부부는 그렇게 눈물겨운 빛을 청산해갔고, 드디어 아주 조금씩 돈이 모였다.

두 형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고 이미 그루터기만 남은 기력마저 우리 형제를 위해 쏟아주는 엄마의 소원이 내가 집을 마련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난 당시 집을 사기엔 너무나 적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그 때 당시 용어도 생소했던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집을 샀음에도 지금 생각하면 한심할 만큼 금융지식이 없었던 난 금리가 오를까 불안과 걱정을 늘 안게 되었다.

“응? 맞는 것 같은데? 주택가격 요건은 우리 집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깐 됐고. 부부합산 소득은.....” 방금 사온 따끈한 트럭 통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과 열심히 뜯어 먹으며, 내가 보낸 기사 중 중요한 대목을 소리 내어 읽던 아내는 연신 “될 거야. 될 거야.”를 되뇌었다.

“흠... 1.85%. 그 정도로 이자가 낮아지네? 여보 그럼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면, 지금 대출 남은 잔액 이자에서 얼마나 절감되는 거야?” 그저 변동 금리에서 고정 금리만으로 전환되는 것만으로도 안심했던 난 집 사람의 질문에 그 때서야 차근차근 계산해 보기 시작한다.

“와~ 맞네. 3,633,101원 절감되는 거다 그치? 그 돈이면 우리 뚝뚝한 가영이 첫 학기 대학등록금에 보태기 충분한 금액이다 그치?” 아내 는 없는 살림에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며 안경 넘어 까만 눈동자를 깜박거린다.

오늘은 우리 딸이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 우리 엄마가 그리고 그 옛날 간호사 누나가 그랬듯 다정하게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가작

송○○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도 OK

이 글을 쓰는 저는 30대 후반의 결혼 4년차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30대 후반까지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로 저 둘이 도대체 어찌 만나서 결혼까지 했을까 라는 주위의 궁금증을 사던 커플입니다.

작년 12월 저희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 우리만의 목표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고, 이번 체험수기가 기회가 되어 제가 어떻게 결혼 3년 만에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실천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결혼 전 저는 한번뿐인 인생을 즐기자~가 목표인 오늘날 사는 스타일인 말 그대로 율로족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제 신랑은 어릴 때 힘들었던 경험과 월세, 전세를 거쳐 내 집의 소중함을 일찍 깨닫고 그 무엇보다도 내 집 마련을 최우선 삼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년의 연애 후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서로의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며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천 만원이 되지 않는 약간의 현금과 30대 초반 대출을 끼고 구매한 혼자 살기 좋은 사이즈의 30년이 넘은 오래된 소형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20대 중반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털탈 털어보니 가진 금액이 2천 여 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쓴 만큼 벌게 되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비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저축 없이, 그저 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여태껏 지내던 게 급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둘 다 주위의 여타 누구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모아둔 돈이 부족하니 남들처럼 신축이니, 30평대 아파트 등은 꿈꿀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신랑이 지내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랑 혼자 지낼 때는 참 아담하니 좋은 집이야~라고 생각했던 집에 한 명 살림이 늘었을 뿐인데 그렇게 비좁을 수가 없더군요. 살림살

이를 구매할 때도 맘에 드는 제품은 집에 들어가지 않아 포기해야 했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도 우선은 집안에 놓을 수 있는 공간 사이즈를 확인한 후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남는 시간에는 신량은 자주 블록맞추기 하듯 집안 빼곡히 차 있는 가구 배치를 바뀌가며 공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정리정돈 및 집안 살림에 미숙한 저는 비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이 자주 스트레스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또한 결혼 후, 부모님의 그늘아래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챙겨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제가 해야 하는 일들로 다가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게도 자동이체를 때맞춰하지 못해 세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하는 상황이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몇 달을 그저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나씩 리스트를 정하고 정리해보자.’

그때부터 달력과 가계부, 노트를 옆에 두고 입출금내역을 정리하고, 고정지출 날짜 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퇴근 후 10분씩, 주말에는 30분씩은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달 쯤이 되니 제 나름대로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왜 신량의 대출금은 매달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걸까?

- 얼마 전 뉴스에서 금리가 인하됐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의 대출금리와는 상관없는 것인가?

- 왜 나이가 같은 신량의 친구와 대출금리가 다른 걸까?

- 왜 우리는 결혼하고 받는 혜택이 별로 없는 걸까?

신량한테 물어보는데 깜짝 놀란 건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신량도 스타일이 재테크를 비롯해 정보에는 둔하고 그저 은행 적금 외엔 잘 모르던 터라 3개월 변동금리(30년)로 3% 후반대~5% 초반대로 적용되어 자동이체되고 있었고, 본인의 대출금리가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도 알아보지 않았더라고요. 그저 내 집 마련이란 목표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뿐 부동산이나 은행의 안내를 그대로 따라 대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 정책 및 혜택 등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내 생애 첫 주택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이 있었음에도 하나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가계부 공부와 함께 대출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던 차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알게 됐고, 조건만 맞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소형아파트의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서 대출금리를 줄이는 방법과 내 생애 첫 주택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신혼가구 혜택은 남아있는지라,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뒤 새 보금자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 중 가능하겠더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다, 앞으로 식구가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봤을 때 좀 더 오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주택 구입이 낫겠다 싶어, 한동안 변동금리는 그대로 두고, 주택구매를 위한 종자돈을 마련한 뒤, 진짜 우리집을 찾아 두 번째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비가 아닌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보단 둘이 되니 좀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것이라 계획을 세우고 둘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셋이 되기 전에 열심히 모으고 최대 5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집에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 방향과 저축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한두 잔씩 마시던 커피숍 커피를 끊고, 버릇처럼 하던 인터넷 쇼핑을 줄여나가며, 인터넷 마트 쇼핑횟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외식 및 배달 횟수도 세어가며 줄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언제쯤 모을 수 있을까 지루하게 모이던 돈이 천만원이 넘어가고, 천만원이 넘어가니 돈을 모으는 재미가 붙었고, 이천만원이 넘어가니 약간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나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만은 아니구나.’ 느꼈던 게 바로 그 시점이었던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신랑과 함께 주말마다 시외로, 관광지로 놀러가는 대신,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부동산으로 찾

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며 우리의 미래를 꿈 꿀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작년 10월 (2019년) 보는 순간 ‘이 집이다’란 느낌을 받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남향의 따끈따끈한 햇살 좋은 냄새가 나는, 밝고 포근한 느낌이 맘에 드는 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3번을 방문한 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미래를 함께 할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후 잔금일까지 2개월의 시간을 두고, 그때부터 다시 3년 전에 훑어봤던 대출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다시 찾아 우리와 맞는 조건을 찾아가며 궁금한 점을 메모하고 필요서류 등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큰돈을 모아보지 못했던 제가 집을 장만하는 것도 꿈같은 일이었지만 빚, 신용, 대출 이런 단어들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 사용 등 제 스스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며 알게 된 내용이 1금융 은행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대행을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이율이 저렴한 방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그 방법이 0.1% 저렴했습니다.

저희는 모기지론 중에서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결정하고, 기존 살고 있던 주택은 1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부동산에 바로 등록했습니다. 30년 고정금리-2.25% / 안심주머니 앱 다운-0.02% 할인 / 신혼가구-0.2% 할인 적용받아 최종 2.03%p 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 변동금리로 내던 이자가 4%대였는데 거기에서 절반 금리로, 그것도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어 돈버는 듯한 기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약 제일 처음 주택 구입에 알았다면 좀 더 1%대의 낮은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었겠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때 배운 만큼 더 성장하고, 아는 만큼 조금 더 보였으니 이번 기회에 2%대의 낮은 금리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안 삼았습니다.

이렇게 2019년 12월 우리는 계획했던 5년보다 2년 빨리, 3년 만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줄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아니었다면 평범한 직장 생활자인 저희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절대로 꿈같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곳보다 많은 혜택과 저렴한 금리로 앞으로 부담은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준 모기지론,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의 노예에게도 '궁'은 있다!
(대출계의 1등급 U-보금자리론)

#1. 부린이(부동산 어린이)의 욕심이있을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이 오른다 싶은 지역은 죄다 조정지역이 되고, 대출규제, 청약통장 기준 강화, 양도세 증가 등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아줌마는 연일 화제 되는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어렵기만 하다. 잘 모르니 사람들의 반응과 분석도 내 이야기가 아닌 것만 같고, 다만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 학창시절엔 열심히 공부하고, 성인이 된 후엔 이루고자 하는 꿈

을 위해 노력하면 탄탄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시대는 잘 키운 집 하나가 풍족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만 같다. 그 미래를 위해 버스를 빌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소형평수 아파트에 갇투자를 하며, 대출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0월, 25평이지만 대출 없는 내 집에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나는 큰 결심을 했었다. 당시 6살 딸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나은 학군지로 터전을 옮겨야겠다는 생각. 뭐든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나서 미련 없이 버리자는 주의라, 외국인과 능숙하게 대화를 하고 영어책과 한글책을 혼자서 읽고 주산 자격증을 따고 있던 딸아이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중이었다. 내가 사는 지역엔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군지가 있었는데 30년이 되어가는 구축 아파트 가격이 당시 살고 있던 25평 아파트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매일 생각해보았다.

용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가 낮지 않을까, 괜히 학군지로 이사했다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만 주지 않을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 일단 한번 보고만 오자 싶었던 집을 그 날 바로 계약해버렸다. 그렇게 일은 벌어졌다.

#2. 대출금리 2.85%. 말도 안 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된 계약이었다. 이사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알아볼 것이 많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매도비용 마련하기! 필요한 돈은 2억이 넘어가는데 이제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가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내 일도 중단돼버린 터였다. 두렵지만 이제 대출의 문을 두드릴 차례였다.

먼저 온라인에서 자주 보였던 업체부터 알아보았다. 그곳에서 소개해준 상품은 --은행의 2.85% 고정금리상품과, --화재의 3.08% 5년 고정금리 상품 두 가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야 했던 나에게는 있어 선택지는 오직 저 두 가지라고 했다. 최소 대출 2억 2천 잡고 2.85%면 한 달 이자가 한 달에 52만 원? 입이 떡 벌어지고 머리가 멍해졌다. 만 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아왔던 스크루지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베란다에 볼링핀처럼 모아둔 공병들을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50만 원 이자에, 32평이니 매달 관리비가 30만 원, 원금도 상환해야 하고, 애들 유치원비와 학원비, 매달 나가는 보험료, 연금저축, 식 재료비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거의 3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3. 대출의 노예에게도 ‘급’은 있다

누군가 그랬다.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바로 일을 시작했다. 이사 가기 전에 필요비용을 모을 필요가 있었고, 대출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몸이므로 무조건 일이 필요했다. 다행이었던 건 20대부터 아이를 낳고서까지 쉬지 않고 프리랜서 전문직 경력을 이어왔던 것이었다. 앞으로는 기술직의 시대라고 전문대에 보내자는 아빠와 싸우며 대학교에 보내주셨던 엄마에게도 감사했다. 이사가 결정되고 나는 지렁이든 딱배이든 가릴 것 없이 일의 미끼를 물었고, 그러면서 다시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2.53%로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두근두근,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신혼부부이면 0.2% 우대, 장애인은 0.4% 우대, 총 0.6%가 우대되어서 최종 금리는 1.93%이라는 소식! 오, 신이시여! 그 날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신(神)이 들어왔다. 알아보다가 안 되면 최후의 보루로 연이자 2.85% --은행의 대출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찰나였기에 더 극적인 순간이었다.

#4. 대출계의 1등급 U-보금자리론

대출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으니 마치 발목에 두꺼운 쇠사슬이 채워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우스운 것이 금리가 생

각했던 것보다 1%나 떨어지고, 월 이자도 16만 원이 줄어드니 ‘이 정도는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값이라고 생각하지 뭐~!’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 새로 이사 온 아파트는 역세권에, 초중고가 코앞이고, 대규모의 공원과 학원가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었기에 생활의 만족도가 그전보다 말도 못 하게 좋아진 것도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게 해준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답게 신혼부부 우대, 장애인 우대, 한부모 가정 우대, 다문화 다자녀 우대까지 최대 0.8%의 금리 우대가 가능했다. 물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므로 정당한 규제는 있었다. 부동산 투기와 정당하지 못한 거래들이 판치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적어도 주택담보대출만큼은 정말 어렵고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출상담사의 친절한 설명이 있어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대출은 무사히 실행되었다. 정신없던 이사과 정리의 날들도 지나고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살던 것처럼 새로운 터전에 뿌리를 내렸다.

#5. 당신의 터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터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지난 6월 17일 내가 사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도 집값의 40~50%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예상과는 반대로 집값 역시 잡히지

않고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6세니까 내년엔 이사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한 이유는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재건축을 역사의 사명처럼 여기고 싸우는 사람들. 새로운 부동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내면서도 내놓은 집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사람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쓰는 사람들.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의 갯수를 늘리는 사람들. 아직도 저평가라며 지금 사야 한다고 부추기는 부동산 업자들.

그렇게 힘을 합쳐 집값을 올리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그 집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가족을 꾸릴 때 아무도 눈물 흘리는 일 없이, 인생이란 땀 흘려 일구는 결실이라는 진리가 통하는 곳...

그곳이 우리네 삶의 터전이었으면 좋겠다.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가작
최○○

꿈을 지켜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저희 가족은 결혼 6년차에 두 아들로 완성된 네 식구의 작은 가족입니다. 2014년 결혼해서 광주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1년 후 전남 영광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영광에서 첫째, 둘째를 낳고 2018년까지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2017년 둘째가 태어난 후 어느 날, 우리가족은 영광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늦기 전에 집을 마련해야 함을 고민하며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가진 것은 없지만 앞으로 더 오르게 될 아파트 값을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담이 되지 않게 살만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부산의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많은 대출을 통해 구입하였고 또 조금의 리모델링을 해야 했지만 지출되는 금액보다 행복한 생각이 더 많았던 시절입니다.

처음에는 대출이 많아 부담도 되었으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구입을 하자는 것이 가족의 의견이었고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최대한의 대출을 이용하여 아내와 제가 대학 생활까지 지냈고 저의 친가가 있는 부산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를 산 것은 우리의 고향이기에 우리는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업을 위해 많은 고생을 했지만 대출도 잘 되었고 드디어 우리의 집이 생겼습니다. 당장 우리의 집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꿈을 이룬 것에 대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가격에 월세를 내어 놓고 무난히 월세 계약이 되어 조금의 부담이 덜어지기까지 하며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며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이 반전세로 바뀌며 가정 형편상 대출 원금과 이자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던 2019년 어느 날 국가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실행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4% 후반이었던 대출 이자가 1.9%로 전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열심히 서류를 해서 대출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우선순위가 되어 대출 전환이 되었고 그 결과 들어오는 월세로 모든 원금과 이자를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의 부목사로 작년에 광주에서 지내다 올해는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수입도 넉넉하지 않고 직장도 정규직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전세자금, 주택 보증 대출 등 국가의 대출 정책으로 결혼 후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였습니다. 수입과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덜고 절대로 처가에 도움을 받지 않고 아내를 일자리로 내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할 때 저의 적금에서 대출을 하거나 은행권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마련해준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원하는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아내가 원하는 넓은 주방이 있는 집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언제든지 들어가 지낼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동료 목사님들 중 자신의 소유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주위에서 제가 유일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사는 것이 부목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저는 담보 대출을 시작으로 성실히 상환해가며 1금융권에 서만 대출을 시행하여 신용 등급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정책, 특별히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저와 우리 가정에 신의 한 수의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언제 부산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담보 대출 3년이 경과 한 후에 아파트를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세가 하락하여 손해만보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덕분에 지금은 마음 편하게 집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부산으로 돌아간다면 곧 만기가 될 적금으로 나름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아내가 계획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덕에 주위에서 '집 있는 부목사'라는 말도 듣고 매 달 부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로 이사하며 큰 아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미안할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부산에 아파트가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었고 부산에 살게 될 때면 놀이터가 있는 높은 아파트에서 살 것이라고 설명해 주며 대신 지금 아빠가 많이 놀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행히 웃으며 받아주는 아들에게 넉넉한 형편은 못되나

행복한 가정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남들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로 가서 놀고 돌아오지만 언젠가 부산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도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대출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할 내 집 마련이며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아니면 이렇게 편하게 집을 유지하지 못할 내 집 마련입니다. 서민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고 꿈을 이루며 그 꿈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상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곧 나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해 살 것을 계획해 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참으로 예쁘게 꾸며서 살 것입니다. 아이들의 작품도 마음껏 벽에 전시할 것입니다. 떼기 쉽게 붙여 놓아 매번 떨어지는 아이들의 작품들, 그러나 마음껏 꾸미며 살 수 있는 내 집이 우리 가족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가작

전○○

희망을 선물하려 해

잠들어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가들아! 너희에게 희망을 선물하려 해’

우리는 경기도 안양에 18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작은방 하나와 부엌, 욕실, 거실이 있다. 딸 둘과 나까지 셋이서 함께 살고 있다. 작은방에서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서 우리는 거실 겸 큰방에서 셋이 함께 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양받아서 살던 집이다. 큰 아이가 22살이니깐 벌써 17년이 다 되었다.

홀쩍 커버린 아이들과 한방에서 잘 때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다. 퇴근 후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지친날도 잠자리에 들 때면 어김없이 숨소리까지 다 들릴만한 공간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수다를 떠는 아이들 소리에 피로가 풀리기도 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한다. 출근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나면 아침 햇살이 베란다를 통해 가득 들어온다. 아~ 이 빛이 눈이 부실정도의 희망이기를 바란다. 늦잠을 자는 아이들이 눈이 부시다며 투정을 부리지만 나는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만큼의 눈부신 희망을 너희에게, 아니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 엄마라는 단어가 가슴이 아프고 무겁고 지칠 때가 많았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어려서 이혼을 했지만 실직자인 아이들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로 아이들 교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아이들 아빠의 사업부진으로 살고 있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빚까지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힘에 겨웠다. 급할 때 형제자매에게 조차 단돈 100만원을 빌리려 해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큰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든든함, 나는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릴 적 우산도 쓸 수 없는 폭우가 올 때 우비를 입혀 등에 업고 등교시켜주시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쏟아지는 비에 다 젖어 버리긴 했지만 든든하고 보호받는 느낌,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내 삶과 닮아있다. 비록 아직 갚아야 할 빚도 많고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 갈 길이 멀어도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다. 안심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당시 18평형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이 넘는 금액을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있었다. 아이들 아빠의 사업부진으로 가게 빚이 계속 늘었고 이혼 후에도 내가 그 빚을 갚아 나가야했다.

시중은행의 대출은 35년 장기로 원리금 균등상환이었고 변동금리였다. 35년 후면 내 나이가 80살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기 대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매달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을 낮추기 위해서다. 금리인하의 조건도 까다로웠다. 그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매달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하고 공과금도 자동이체 시켜야하고 작은 적금도 하나 들어야 했다. 돈이 없어서 1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게 적금이라니... 그

래도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어쩌나,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늘 내재돼 있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1%대 주택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 기사는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 조금이지만 매달 생활비가 보태지거나 아이들 용돈을 더 줄 수 있는 일이었다.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색하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알게 되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알게 되었다.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는 어리숙하고 나이만 많은 아줌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내용을 살펴보니 조건이 있었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 5백만 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은 KB시세로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였고, 2019년 7월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중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었다. 다른 조건들도 다 해당되고 당시 시중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로 변동금리 대출 중 이어서 조건은 모두 만족하였다. 한부모 가족으로 금리인하 혜택도 있었다. 거기다 인터넷 신청으로 0.1%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적용해보니 30년 장기대출로 전환하더라도 나는 1.7%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정도 걱정

이 떨어지고 안심이 될 것 같아 기대가 컸다. 그래도 처음 접하는 것이고 서툴러서 마음은 계속 불안하였다.

처음 접수를 할 때는 신청인원이 많아 접속도 잘 안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그때는 왜 그리 길게 느껴지고 조마조마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속 꽤나 타들어 갔었다. 2019년 9월21일 처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10월1일 대상자선정심사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10월21일 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10월24일 대출심사가 완료되었다.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중간에 내가 뭔가 잘못 처리한 것이 있을까 불안하여 문의전화도 여러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연결은 되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로 시도 끝에 연결된 상담사분은 의외로 친절하였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주셔서 다시 안심하고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전자약정까지 한 이후에 은행을 방문해 신청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을 기다렸다. 그해 11월 22일 드디어! 전환대출이 실행되었다. 그리고 12월 31일 첫 번째 원리금을 납부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울 것 없을 거 같은데 그때는 조바심 나고 긴 여정 같은 기분이었다.

한부모 가족 증명으로 감면혜택을 받아서 총1억15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30년 간 원리금 균등상환하게 되었다. 매월 408,018원씩 30년간 상환하게 된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대출기간은 오년이 줄어들었고 납입금은 한 달에 약 오만원 이상 정도가 줄어든 셈이다. 기분이 좋았다. 비록 빚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줄어든 원리금보다도 더 큰 짐이 어깨에서 내려온 기분이 들었다. 또한 소심하고 어리숙한 내가 조금은 대견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1억이 넘는 대출을 전환하고도 우리는 대출 실행이 된 날 저녁에 치킨을 시켜먹었다. 아이들이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라고 묻는데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난다.

지금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바뀌면서 3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에 고정금리이고 금리가 낮아 매월 납입해야하는 금액이 줄어서 안심이 많이 된다. 대출 이자를 누가 지었는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다. 비록 긴 세월 빚을 갚아야 하지만 매달 변동 없이 보장해 준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른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꾸준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추억이 남아 있는 이 집에서 노후에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최소한의 노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겨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동안 어린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느꼈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할 때도 많았는데, 잘 자라준 아이들과 그 과정을 함께 지켜준 이 집이 나는 참 고맙고 좋다. 그리고 나에게 안심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선물해준 주택금융공사에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안심과 희망’ 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다시 기운을 내게 되었다. 대출이 전환되었다고 해서 가게살림이 갑자기 확 바뀌거나 나아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배려 받았고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형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작은집 작은방, 베타다 창문을 통해 아침이면 곧장 들어오던 눈살 찌푸려지던 햇빛이 지금은 우리의 보금자리, 작은 둥지가 되고 눈부신 햇빛은 그만큼의 희망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곱게 잠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게 누군가 희망을 선물한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우리가족도 더 열심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

2020년
정책모기지 체험수기

가작

김○○

어두운 터널에서
한줄기 빛을 보다

충남 대전시 대덕군 장대리 144번지

이것이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주소입니다. 젊은 나이에 어린 세 딸을 두고 뜨거운 리비아로 건설노동을 떠났던 아버지의 꿈은 그저 어린 마누라와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세 딸과 함께 살 자그마한 집을 장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진 어려움을 겪어낸 강인한 아버지였건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던 해부터 삶의 의지를 잃고 술과 폭력으로 세월을 보냈고 그런 아버

지를 보며 자랐던 나는 어른이 되면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노라 결심에 또 결심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세를 살던 집주인 부부는 덕이 많고 인자하신 분들이었지만 그 집 막둥이가 나보다 한 살 많은 오빠여서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호적에도 없는 집주인 오빠노릇을 하며 나를 참 많이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한참 예민하고 욕심 많은 나에게 셋방살이를 한다는 것은 치욕에 가까웠고 언제쯤이면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지냈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가세는 계속해서 기울어 그 작은 셋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쳐야만 했습니다. 참 원망스럽고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타이었던지 27살에 결혼을 하였고 시댁에서 얻어주신 전셋집에 산 지 일 년이 지난 후 부터 나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워낙 큰돈이 필요하였기에 꿈도 못 꿀 상황이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동네방네 아파트를 보고 다녔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남편에게 집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잠만 자면 되는 공간이었겠지만 나에게 집이란 내 어린 시절의 꿈이자 내 아이가 편안하게 쉬고 뛰어 놀 아주 중요한 내 삶의 자존심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나를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뒷담화를 하기 일췌였고 졸지에 나는 욕심만 많은 욕망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의치 않고 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큰돈을 대출받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였고 어찌됐든 꿈을 이룬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 큰돈이 아니었던만 외벌이 남편 혼자서 생활비와 대출이자와 원금, 아파트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일이 적지 않게 힘들었던지 집을 장만한지 2년이 안돼서 다시 팔고 월셋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새 집값이 조금 올랐지만 빚을 갚고 나니 수중에 2천만원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원망하듯 나는 어느새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에 또 결심을 하였건만 결국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난 내가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기에 희망을 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젊어.. 집은 또 살 수 있을 거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나 자신을 다독이고 또 다독이며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집 장만이 우선이었던 나에게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교육이 더 중요해져 버린 순간 나는 집장만을 조금 뒤로 미루고 아이의 교육

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고 인생의 모든 목표가 아이에게 맞춰져 아이가 필요한 공간이 어디인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변두리로 가자니 아이가 시골로 가면 인생이 망가져 버릴 것만 같고 집값이 비싼 중심가로 가자니 내 집 장만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선택하여야 했고 결국 나는 아이의 교육을 위하여 내 능력에 버거운 아주 비싼 중심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비싼 월세에 관리비에 생활비에 우리 부부는 웃는 날보다 싸우는 날이 더 많은 날을 보냈고, 그 시절 나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사이 두 동생도 결혼하여 집도 장만하고 자식도 낳아 기르는 동안 나는 두 동생에게 열등의식을 느꼈던 건지 아님 살기가 바빴던 건지 왕래도 거의 없이 오직 나의 아이만을 위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뜨거운 나라에서 고생하고 사기를 당한 후 술로만 살던 시절의 결과인 듯 오랜 세월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삶을 사셨고, 나는 그런 부모와 동생들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아니 그냥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욕심 많고 원망스런 맘으로 사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집 장만은 자꾸만 미뤄졌고 남편과의 불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사이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죽어도 나는 절대 울

지 않을 거야! 연락해봐라 내가 장례식장에 가나”라고 말하던 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삼일밤낮을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 미워했던 것이 사랑이었나.. 그렇게 미워했던 내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고2가 되었고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교육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나는 그새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오른 집값을 원망하여 이리저리 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집값이 저렴하여야 했고, 첫 집 장만 때 겪었던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는 일이, 비싼 월세를 15여 년을 내고 사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됐습니다. 같은 장소를 다녀오고 또 다녀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사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았습니다. 결과는 볼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빛도 한 줌 없는 어두운 터널에 방향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내 나이 사십대 중반.. 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해 줄 부모님도,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시댁도, 같이 힘을 합쳐 줄 남편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결정에는 나의 책임만이 따를 뿐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을 고민하였고 나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는 번두리에 깔끔한 27평 아파트를 2억이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라며 이왕 사는 거 더 큰 평수에 더 비싼 가격의 좋은 아파트를 구매하라며 나를 부추겼지만 나의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2억이 안 되는 아파트였건만 워낙 가진 돈이 없던 나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월 75만원을 상환하여야 했고 그것은 적잖이 부담스런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월 상환금 스케줄표를 보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한숨을 가까스로 감춘 채 서명을 하였고 이사를 한 첫날 기쁨도 잠시 갇아야 하는 빛이 나의 두 어깨를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서울은 아파트 값이 2~30억이 넘는다는데.. 누구는 대출을 3억씩 받았다는데 하며, 그래! 집사는 데 이정도 빚은 빚도 아니다’라며 초라히 나를 위로하였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절 갇아야 할 빛과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나는 허리를 졸라매야 했고 뭐든 아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 살다가 정 안되면 팔고 다시 저렴한 전세로 가야지’하며 씩씩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무렵 네이버 기사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기사였습니다. 4%대 이자

를 내고 있던 내게 2%초반의 이자는 정말 로또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월 75만원의 상환금이 47만5천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원금 상환도 같이 하면서.. 괜스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죄송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지 말고 살라고.. 열심히 살았으니 고생했다며 한줄기 빛이 비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법. 기사를 읽은 후 연달아 부정적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착순이어서 안 될 수도 있다, 아파트 값이 (상대적이므로) 비싸면 안 될 수도 있다, 심사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등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기사들이었지만 나는 차분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내가 안 되면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 살아갈 이유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변경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비록 큰 금액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9년 12월 말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으로 월 3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30만원으로 총 1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고 작은 내 가슴에 따뜻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유를 대면 모든 이에게 자로 잰 듯 공평한 이익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당했던 사기로 인해 희생되었다 생각되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

사회생활 새내기 때부터 납부했던 세금이,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던 돈들이,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술을 마시고 실망하며 울부짖는 젊은 나에게 50을 바라보는 지금의 내가 빙그레 웃습니다.

어둡다고 해서 모든 터널이 긴 것은 아닙니다. 순간 생명의 끈을 놓는 많은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빛도 없는 터널은 빠르게 걸을 수 없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한발 한발 걷다보면 그 끝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여야 하는 많은 이들이 서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제도로 많은 이들에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제 공해주시는 대한민국에 감사드리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